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8호 2025년 08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센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무더운 여름, 외국인 민원인들에게 수박을 나눠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재형)는 지난 7월 30일 오전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이민자네트워크 봉사단과 함께 수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아침 일찍 사무소에 나온 이주민 봉사자와 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은 수박 7통을 잘라 플라스틱 컵에 담았다. 준비된 200여개의 수박컵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전달됐다. 무더운 날씨에 뜻밖의 수박을 전해 받은 외국인주민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사진은 행사 후 환담하는 참가자들. 관련 기사 7면)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소득 늘고 자녀의 대학 진학을 높아졌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지난해 국내 다문화 청소년 10명 중 6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문화가족 소득 수준도 향상됐고, 국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중 또한 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여성가족부는 최근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자녀교육,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예요.

자녀 대학 진학 크게 높아져

다문화가족 1만60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

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집계됐어요. 2021년 40.5% 대비 무려 21.4%포인트나 상승한 것이예요. 일반 국민의 고등교육 순취학률 격차도 줄었어요. 2021년 31%포인트에 달했던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국민 자녀 간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13%포인트로 줄었어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 확대가 2000년대 초중반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취학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월평균 소득도 크게 증가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도 3년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번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구 비율은 65.8%로 조사됐어요. 2021년 50.8% 대비 15%포인트 증가했어요. 전체 가구 중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구간은 23.9%로 집계됐어요.

월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가구는 각각 12.4%, 10.4%를 기록했다. 해당 구간 가구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예요.

단순히 다문화가구의 소득 수준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소득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직업 안정성은 높지 않아

다만 직업 안정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용근로자 비중이 45.6%로 2021년 47.7% 대비 소폭 줄었어요. 직종별 분류

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이 39.0%로 가장 많았어요. 이전 조사 때의 32.4%보다 증가한 수치예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월급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용근로자 비중이 작아졌다"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데 고용 안정성이 높은 분야를 더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문화가족 거주 기간도 늘어

다문화가구 정착 기간이 길어진 것도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가운데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구성원 비율은 52.6%로 나타났어요. 2021년 39.9% 대비 12.7%포인트 늘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안산 3~10 시흥 11~17 파주 18~21 부천 22~25 고양 26~27 광명 28~31 김포 32~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5, 18, 23, 3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5, 20, 29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19, 30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23 영어(English) 13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15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 2, 5, 13, 29, 33 생활정보 Information 2, 6, 10, 17, 19, 21, 31 나의 학습 My Study 4, 24, 27, 30, 34 보건 Health 10 이주배경 청소년 8, 16, 35 도서관 Library 7, 26 경기외국인SNS기자단 6, 19 외국인주민 25 여가 Leisure 3, 9 국제교류 25 계절근로 12, 18, 30 소비 Consumption 5, 15, 33 폭염 23 상담 Counsel 16 출입국 Immigration 28 건강보험 20

“경기도 다양한 가족을 위한 3가지 특별한 혜택 확인해요”

‘경기 아이듬북 지원사업’, ‘배달특급 할인 프로모션’, ‘여성안심패키지’ 추가 접수 등



예비 부모의 출산 준비 책으로 지원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도내 임신 가정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를 위한 도서 3권을 무상 제공하는 ‘경기 아이듬북(BOOK)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예비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준비 과정에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 본인이 출산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류 확인 및 접수가 완료되면 신

청 시 기재한 주소로 도서 3권과 임신?출산?육아 관련 경기도 정책 안내문이 함께 택배로 발송된다.

지원 도서는 육아 및 양육분야 전문가, 도서 전문가, 임신 중인 도민 등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도서들은 ▲육아 정보 제공 ▲부모 가치관 정립 ▲태교 및 건강 등의 내용을 담은 책으로 목록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특급 할인으로 든든하게 챙겨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말복 할인에 나서며,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말복의 정석’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까지 총 10개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기간 내 1인 1회에 한해 2만2천 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시 적용하면 사용가능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최소주문 금액에 따른 할인 조건

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 ‘여성안심패키지’ 추가 접수

경기도가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의 신청 접수가 저조했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일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시군별 잔여 수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여성안심패키지는 경기도가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열립센터,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등 방범 물품으로 구성됐다.

추가 접수는 1차 모집에서 잔여 수량이 발생한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연천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수원시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각 시군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시군별로 물품 구성과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 1인 가구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추가 접수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박재용 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북부본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담당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설차운영 실태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과거 열악한 환경의 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직접 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을 깨달았다”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면 새로운 노동자의 유입과 장기 체류를 촉진하게 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쉼터 지원사업을 세심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병인, 계절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비자 문제에 대한 행정적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재취업 대기 기간(3개월) 동안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식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 제안했고, 해당 사업이 채택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면 도는 2025년도 2차 공모를 통해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중인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생활공간 개선 및 안전시설 보수 비용, 주·부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쉼터란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과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이다. 김영의 기자

김진경 의장, 시흥 다문화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격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8일 오전 시흥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흥시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 몽골,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각국에서 모인 25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스물다섯 분의 대원들이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은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빛나는 결실이 바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원들께서는 앞으로 일상에서,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합동 순찰에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31일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립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이번 순찰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특구에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

이다. 합동 순찰은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출발해 원곡초등학교, 안산역 인근을 거쳐 다시 공원으로 복귀하는 약 1.7km 도보 구간에서 이뤄졌으며, 이 시장과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 이재형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직접 참여해 기초질서 캠페인을 병행했다.

참여자들은 순찰 중 △불법 광고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차 △음주소란 행위 △무전취식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예방 홍보를 펼쳤고, 동시에 지

역 내 CCTV 및 비상벨 등 방법 인프라도 점검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활 민원과 현장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번 합동 순찰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안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초질서 문화 확산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이

존중받고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포용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다문화특구를 포함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순찰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도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성 기자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 페스티벌
어르미오

8.15. (금) — 8.16. (토) 안산문화광장
 물놀이 프로그램 10:00~18:00 | 워터 콘서트 with 물대포 18:00~22:00

LINE UP
8.15. (금)
 디퍼, 액조디아 & WAVE, 신안산대학교, DJ 로스포르어

8.16. (토)
 10CM, 키노, 리센노, 러브윌, DJ 카시하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무더위를 날려라, 안산서머페스타!

안산시, 여름 물놀이축제..외국인도 참여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안산시 최초로 '안산 서머 페스타' 행사가 열려요. 중요한 행사이니 잊지마세요!

안산시는 오는 8월 15~16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 서머 페스타'(물축제 + 여름미오 페스티벌)를 개최해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물놀이, 공연, 체험, 부대행사 등을 하루 최대 1만명이 즐길 수 있어요.

먼저 '물놀이 프로그램'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의광장에서 운영되며 이후 '워터 콘서트 with 물대포' 행사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돼요. 특히 워터 콘서트에 참여하는 연예인과 DJ의 면면도 화려해요. 8월 15일에는 ▲디퍼 ▲액조디아 & WAVE ▲신안산대학교 ▲DJ 로스포르어가 참여하며 16일에는 ▲10CM ▲키노 ▲리센노 ▲러브윌 ▲DJ 카시하 등이 참여해요. 유아를 위한 물

놀이터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썬큰광장에서 진행돼요. 쿨링존과 튜브낚시 등이 운영돼 아이들을 즐겁게 할 전망이에요.

브릿지광장에서는 하루 종일 무대공연과 퍼레이드, 물총싸움 등이 진행돼요. 외국인주민들도 안산시 최초의 물놀이 축제에 참여해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리면 어떨까요?

안산시청 관계자는 "다양한 축제가 함께 하는 안산시는 유쾌함과 흥이 넘치는 도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안산에서 물놀이축제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한편 안산시의 축제는 이후에도 계속돼요. 9월에는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10월 '안산페스타'(통합축제), '김홍도문화제', '유니온페스티벌'(5개 대학 연합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안산 도심 곳곳을 수놓을 예정이에요.

송하성 기자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소통과 화합 커져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캠프...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캠프'를 진행했다. 경기도 및 안산시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첫날은 센터에 모여 가족 내 의사소통 교육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캠프 일정 안내와 물놀이 안전

수칙 등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로 이동한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질서정연하게 서로 협력하며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이 모 씨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행복했고, 꿈만 같은 1박 2일 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이 생겼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숙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의미있는 문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만 6~18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7월 16일자로 공포된 이번 조례로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우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향후 제도적 기반과 예산여건을 마련해 전체 어린이·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은 내년 1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2025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多文化家庭陶瓷工艺 1期

活动时间: 2025. 8. 9.(周六), 16(周六), 23(周六)
 招生对象: 小学4~6年级子女(2013年~2015年出生)
 多文化家庭·外国人家庭, 子女+父母 10组
 活动内容: 陶瓷工艺(共3次活动, 每次制作2个作品)
 申请期间: 2025. 7. 23.~2025. 8. 6.
 申请方式: 中心网站(顺序为准)
<https://ansancenter.familynet.or.kr>
 咨询电话: 031-599-1708/1700

- ★ 3次活动全部参与者优先, 活动内容以实际情况为准
- ★ 活动当天无故缺席或取消活动者将影响下次申请同类活动, 中心有权取消参与者资格
- ★ 3次活动结束后经干燥, 烧制等工艺需30~40天后到中心自行领取
- ★ 2024年参加过多文化家庭陶瓷工艺的家庭不可重复参加本次活动
- ★ 报名期间内父母和孩子同时都申请者视为报名成功

 1 8月9日(周六) 10:00-12:00 制作陶瓷笔筒 活动时间: 2小时 活动地点: 中心4楼大会堂 ※ 陶艺制作过程中频繁接触陶土, 易沾染泥渍建议穿着易清洁的衣物	 2 8月16日(周六) 10:00-12:00 陶瓷手工绘画及贴花印刷 活动时间: 2小时 活动地点: 中心4楼大会堂 ※ 绘画及贴花印刷过程中接触染料, 建议穿着易清洁的衣物	 3 8月23日(周六) 9:00-13:00 陶艺体验 活动时间: 4小时(含车辆行驶时间) 活动地点: 大阜岛 SJDOYE ※ 免费提供午餐, 往返大巴及旅行保险, 建议穿着易清洁的衣物
---	---	--

Gia đình đa văn hóa, trải nghiệm làm đồ gốm lần 1

Ngày giờ : 9. 8. 2025 (Thứ bảy), 16 (Thứ bảy), 23 (Thứ bảy)
 Đối tượng : 10 đội con + cha mẹ, gia đình đa văn hóa-người nước ngoài con học tiểu học lớp 4~6 (sinh năm 2013~2015)
 Nội dung : Trải nghiệm làm đồ gốm (mỗi lần 1 đội, 2 tác phẩm)
 Cách đăng ký : Đăng ký qua Family Net (nhận đăng kí thứ tự)
<https://ansancenter.familynet.or.kr>
 Liên hệ : 031-599-1708/1700

- ★ Tác phẩm và lịch trình ghi trên có thể thay đổi tùy theo tình hình
- ★ Trường hợp vắng/hủy bỏ vào ngày trải nghiệm, sẽ hạn chế tham gia lần sau
- ★ Ưu tiên cho người có thể tham gia cả 3 lần
- ★ Tác phẩm làm xong, khoảng 30~40 ngày sau sẽ đến trung tâm và nhận
- ★ Đối tượng đã tham gia làm đồ gốm sứ năm 2024 không được tham gia
- ★ Trong thời gian đăng kí, con-cha mẹ cùng đăng kí thì mới được chọn

 1 Ngày 9 tháng 8, (Thứ bảy) 10:00-12:00 Làm hộp đựng bút Thời gian : 2 tiếng Địa điểm : hội trường lớn ở trung tâm đa văn hóa, tầng 4 ※ Vì làm bằng đất sét nên mặc quần áo thoải mái và không ngại bẩn	 2 Ngày 16 tháng 8, (Thứ bảy) 10:00-12:00 Làm đĩa và ly Thời gian : 2 tiếng Địa điểm : hội trường lớn ở trung tâm đa văn hóa, tầng 4 ※ Vì sẽ làm bằng màu nước nên mặc trang phục thoải mái và không ngại bẩn	 3 Ngày 23 tháng 8, (Thứ bảy) 9:00-13:00 Trải nghiệm làm đồ gốm bằng bàn xoay Trải nghiệm làm đồ gốm bằng bàn xoay Thời gian : 4 tiếng (bao gồm thời gian di chuyển) Địa điểm : Trung tâm gốm sứ Daebudo Sejong ※ Cho ăn trưa, đi bằng xe buýt
--	---	---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 포용사회 실현 위한 정책 추진 "놀라워"

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이주민 지원 위해 4개 분야 33개 과제 수립



경기도는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국장 김원규, 사진)을 신설했어요.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총 4개 분야 33개 과제를 제시했어요.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 생활 밀착형 현장지원 본격화

경기도는 올해 7월 의정부시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사무실 규모를 크게 넓히고, 인력을 2배 이상 충원했어요. 또한 다국어 상담도 신규 도입했어요.

지원 언어는 대부분의 이주민이 사용하는 10개 언어로,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지난해에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을 지원받았어요.

경기도는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이주민 포털'을 2026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 쉼터 개선과 산업안전 기반 마련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쉼터 15개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했어요.

특히, 지난해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사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5개 '행복일터'를 선정하고, 제조업체당 최대 1천만 원씩 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 환경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31개 시군과 중앙정부와 협력해 연 2회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에요.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까지 지원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기도는 외국인 입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2월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어요.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밖에도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어요.

■ 사회통합 위한 생활지원 확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할인 혜택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했어요.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해요.

오는 8월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배경 청소년

이 함께하는 이민사회 통합 축제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을 계획이에요.

■ 미래 인재 유치와 유학생 지원

경기도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어요.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분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할 방침이에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경기도의 이주민 친화 정책, 여러분은 놀랍지 않나요? <베트남어 29면, 영어 13면, 중국어 33면>

송하성 기자

农林畜产食品部将在8月6日之前开展“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传统市场进行返券活动

购买韩国农产品和畜产品最多可享受40%的折扣。另外在全国传统市场活动期间购买韩国农畜产品,最多可获得2万韩元的onnuri商品券。

实施农畜产品折扣活动

农林畜产食品部表示,从7月17日到8月6日的3周内,为了减轻夏季国内外消费者的物价负担,将实施“夏季休假季节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

在此次项目中,经营韩国农畜产品的1万2000多家线上·线下流通企业将以当季农产品为中心进行打折活动。

特别是参加此次打折活动的企业除了适用政府补贴的折扣外,还必须额外提供企业自身的折扣,从而进一步减轻了消费者的负担。

因此,消费者在此次活动期间购买韩国农畜产品,每人每周可享受2万韩元的优惠,最高可享受4折优惠。线下实体店

支付自动享受折扣,线上则可在结算阶段使用折扣优惠券享受优惠。

传统市场进行返券活动

还为使用传统市场的国内外消费者举办退款活动。传统市场此前只在节日进行现场退款活动,但从8月4日到9日的6天里,将在全国130个市场举行退款活动。在传统市场购买韩国农畜产品的消费者可以向退货柜台提交购买收据,并

返还相当于购买金额30%的金额,最多可获得2万韩元的onnuri商品券。

农业食品部流通消费政策官洪仁基(音)表示:“假期和休假季节到来之际,预计家庭的伙食费将会增加,因此决定推进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今后在农畜产品集中消费时期或价格上涨时,将推进农畜产品折扣支援项目,减轻消费者的物价负担”。<한글 기사 3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외국인주민의 주소 변경 절차 안내: 이사 후 꼭 해야 할 절차

Как иностранцу сменить адрес в Корее: простая инструкция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Если вы живете в Корее по визе и переехали на новое место, вам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официально изменить адрес. Нарушение этого требования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правонарушен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штрафу.

Почему важно сообщать о смене адрес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иммиграционн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ностранец обязан уведомить об изменении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с момента переезда. Это касается всех типов виз – F6, E2, D2, H1 и т.д. Если не уведомить – штраф до 1 млн. вон и возможные проблемы при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или подаче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Где и как менять адрес?

Способ 1. В районн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Смена адреса производится в день обращения. Это бесплатно и занимает 10-15 минут.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1) айди карту(외국인등록증) 2) паспорт 3) копию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전세계약서 или 월세계약서) 4) заявление №34통합신청서

Если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оформлен не на вас, а на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айди карта, права) и подписанное им согласие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ам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Лич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Все формы можно скачать и распечатать на сайте hikorea.go.kr, перейдя во вкладку 뉴스 공지 → 민원서식 или заполнить сразу на месте. После смены адреса в системе, сотрудник наклеит на вашу айди карту стикер с новым адресом, иногда дают распечатку нового адреса (주소이전 확인서).

Способ 2. 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офисе(출입국관리사무소)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о смене адреса через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требу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на сайте hikorea.go.kr. Записываться на прием следует в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по новому месту своего проживания.

Способ 3. Онлайн на портале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HiKorea

Этот способ подойдет не всем, так как у него есть ограничения. Вам понадобится:

- 1) Компьютер, желательно с Windows (через телефон не получится)
- 2) Цифровой сертификат공동인증서: выдается через банки, Какао Bank, Toss, Nonghyup и др.
- 3) Учетная запись на сайте HiKorea

На сайте необходимо войти в свой аккаунт по сертификату 공동인증서, перейти в раздел E-Application (전자민원) -> Report of Change in Residence (외국인 주소변경 신고). Заполните форму, указав старый адрес, новый адрес на корейском, дату переезда. Прикрепите скан или фото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Отправьте и дождитесь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осле отправки заявка обрабатывается в течение 3-7 рабочих дней. Если потреб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нформация, вам придет уведомление. Вы можете отслеж

ивать статус в разделе My page -> Application Status.

Полезные фразы на корейском

-주소 변경하러 왔어요.[чусо пёнгён харо васоё] Я пришел сменить адрес.

-새로운 주소는 여기예요. [сероун чусонын ёгиеё] Вот мой новый адрес.

-계약서 가져왔어요. [кеяксо каджёв асоё] Я принёс договор аренды.

Смена адреса в Корее – это несложная, но обязательная процедура. Чем раньше вы ее пройдете, тем спокойнее будет ваша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история. Не бойтесь: сотрудник и в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обычно готовы помочь, даже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ого. Главное – не затягивайте с подачей и берите с собой нужные документы.

В Корее к чужим людям относятся с уважением.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ого, главное – не затягивайте с подачей и берите с собой нужные документы.

주소 변경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Корейский закон требует, чтобы иностранцы сообщили о смене адреса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Если не сообщить,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штрафам и проблемам при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ль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помогает избежать проблем с арендой и другими юридическими делами.

주소 변경 방법은?

Самый простой способ – обратиться в район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주민센터). Там вы с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и заполн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Другой вариант – онлайн-сервис HiKorea,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эт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ля онлайн-сервиса вам понадобится компьютер с Windows, цифровой сертификат (공동인증서) и учетная запись на HiKorea.

Если вы арендуете жилье, вам также понадобится договор аренды (계약서) и его копия. Если вы владеете жильем, вам понадобится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аше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房产证).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смена адреса – это обязательная процедура.

Все документы можно скачать на сайте hikorea.go.kr.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ого,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сотрудника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ов.

방법 2.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офисе вы с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и заполн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для этого требу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방법 3. HiKorea 온라인 신고

Онлайн-сервис HiKorea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эт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ля этого вам понадобится компьютер с Windows и цифровой сертификат.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вы сможете отслеживать статус своей заявки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Если вам понадобя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вам придет уведомление.

После смены адреса в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новить информацию в своем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Э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через сайт hikorea.go.kr.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ого,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сотрудника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ов.

Если вы арендуете жилье, вам также понадобится договор аренды (계약서) и его копия. Если вы владеете жильем, вам понадобится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аше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房产证).

유용한 표현들

-주소 변경하러 왔어요.[чусо пёнгён харо васоё] Я пришел сменить адрес.

-새로운 주소는 여기예요. [сероун чусонын ёгиеё] Вот мой новый адрес.

-계약서 가져왔어요. [кеяксо каджёв асоё] Я принёс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смена адреса – это обязательная процедура.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корейского,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сотрудника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ов.

Saldaeva Ekaterina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수박 나누는
친근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와 수박 나눔 행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재형)는 지난 7월 30일 오전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이민자네트워크 봉사단과 함께 수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아침 일찍 사무소에 나온 이주민 봉사자와 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은 수박 7통을 잘라 플라스틱 컵에 담았다. 준비된 200여개의 수박컵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전달됐다. 무더운 날씨에 뜻밖의 수박을 전해 받은 외국인주민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출신 민원인은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해 사무소를 찾았다.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수박을 주니 깜짝 놀랐다”며 “외국인사무소에서 이런 것도 주냐’ 놀라움

마음이다. 더운 날씨에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미안마 출신 인쇄소 씨는 “이주민들에게 수박을 주니 의아한 반응과 함께 너무 좋아한다. 준비한 수박이 금방 동이 났다. 봉사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형 소장은 봉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민자의 대표로서 이곳에 와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 사무소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박 나눔 행사는 이주민 민원인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송하성 기자



**“도서관에 북캉스 오세요”
안산시, 다채로운 프로그램**

안산시(시장 이민근) 중앙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시민들이 폭염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2025년 안산시 올해의 책 독서 감상작 전국공모전’ 접수가 진행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안산시 올해의 책 (▲내일의 엔딩(김유나, 일반부·중고등부 대상) ▲감당 못 할 전학생(심순, 어린이 부분)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부와 중·고등부, 초등부 각각 6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씩 수상자를 선정해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는 안산시도서관 누리집 ‘독서감상작 전국공모전’에서 가능하다.

8월 20일에는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서(書)로 협력네트워크 프리미엄 인문학’ 세 번째 강의를 열린다. 지난 6월부터 관내 대학과 추진 중인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장성희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교수가 ‘그리스 비극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희곡과 고전의 동시대적 연결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 곁들여진 강의가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 ▲제111회 여름독서교실(단원어린이도서관) ▲8월 문화의 날 ‘선물상점’ 공연(관산도서관) ▲여름방학 작사작곡 교실, 3D 프린터 교육(미디어도서관) ▲어린이 영어교실(대부도서관) ▲여름방학 코딩으로 놀자, 동화나라 샌드북(선부도서관) ▲신문 속 과학키워드 여행, 생각독! 말톡! 문해력 업!, 여름야 부탁해(당곡작은도서관) ▲블링블링 토탈공예(달미작은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행사 내용은 안산시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주민도 함께 삶 나누는 소통의 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상록구 사동 1557번지)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나섰다

다양한 공동체 단체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공간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

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마을 단위에서 교육,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생활 속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센터 1층에서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라운카페’에서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즐겁고 기쁜’이라는 순우리말 ‘라운’의 뜻을 담은 이 카페는 바리스타 직무교육을 수료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운영하게 된다.

2층은 공동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전시가 진행됐다.

‘서울예술대학교 코스모스팀의 시민 참여형 전시’와 ‘글로벌청소년센터’의 한국어 교실 전시, ‘문화세상고리’의 세계 의상과 전통놀이 체험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일상을 전달했다.

‘안산마을정원네트워크’는 씨앗 나눔과 식물 심기 체험을 진행하며 생태 공동체의 의미를 전했다.

3층은 올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형 부스와 전시로 채워졌다. 체험 공간에서는 ▲천연비누 만들기 ▲가죽 카드 지갑 제작 ▲파우치 프린팅 등 소규모 공방체험이, 전시 공간에서는 각 공동체의 공모사업 활동 과정과 경과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4층에서는 안산시주민자치회와 공동체 단체가 전시, 체험, 나눔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민자치회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 ▲도자기 페인팅 ▲매듭팔찌 만들기 ▲필사 체험 등을 구성했고, 타로 상담과 건강 문진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문의 031-369-1902, 1903

송하성 기자

꿈빛학교 방학식

7월 26일(금), 방학식을 기준으로 꿈빛학교 학생들이 1학기 학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주일간의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꿈빛학교는 1학기에 총 25명의 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교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안전 체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생활과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방학식에서는 1학기 활동 영상 시청과 각 반 대표 학생 및 담임선생님이 한 학기를 보낸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감을 발표한 대표 학생은 "한 학기를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곁에서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늘 저를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 잘 쉬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한 학기동안 좋은 학생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2학기 기대가 됩니다. 한 학기 수고했습니다. 방학 동안 꼭 쉬고 2학기에 만나요."라고 전하며 소감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각 교과에서 진행한 시상 대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수상을 한 대표 학생 7명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인 만큼 다들 아낌없이 축하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학기에는 더욱더 다양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꿈빛학교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한미약품, 세계시민포럼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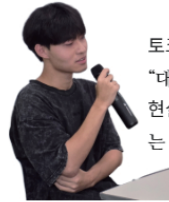


진로플랫폼 드림톡톡 선배와의 미니토크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진로플랫폼 '드림톡톡'의 미니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크쇼에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위성철 학생이 선배로 참여해, 자신의 이주 경험과 진로 탐색 이야기, 대학 생활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위성철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입국해 자음과 모음부터 다시 배우야 했던 시절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IT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정해 나가가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말이 통해야 마음도 통한다"라는 말처럼,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경험담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크쇼 중간에는 "공대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 "대학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진로를 위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이어졌고, "대학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기에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충분히 고민하라"는 선배의 조언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참가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진짜 겪어본 선배의 이야기라서 더 와닿았다", "나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만이 답은 아니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드림톡톡 미니토크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얻고, 스스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드림톡톡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용기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안산시평생학습관의 학습공간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주배경청소년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승미

안녕하세요?

폭염과 폭우로 많은 생명이 스러져간 한 달입니다. 모두 안녕하길 빌며, 안전한 작업현장과 서로의 안녕을 마음과 제도로써 살피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구의 안녕을 위해서도 한 가지씩 실천해보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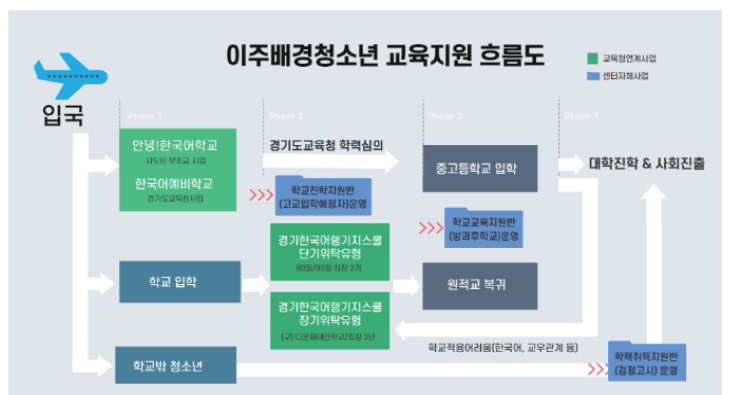
지난 7월 25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경기한국어랭기지를 단기위탁과정' <꿈이음학교>의 1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023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28조 2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신설('23년 10월 신설, 24년 4월 시행)되고 난 후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공교육시스템내의 교육지원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공유학교 형태로 지역사회의 3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들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센터도 올해부터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위탁업무(단기위탁유형)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한국어교육과정에 '경기한국어랭기지를'이라는 공식명칭을 붙이고 입학 후 입학 전 한국어교육을 이수하는 '한국어 예비학교'는 '경기한국어랭기지를 학교밖유형'으로, '다문화대안교육'은 '경기한국어랭기지를 장기위탁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교육지원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단기위탁형 한국어랭기지를은 한 학기에 60일/9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수업을 주 26시간(언어기반교과 포함) 이상 하는 한국어집중 위탁교육입니다. 학적을 둔 상태로 지역사회지원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며, 학생신분으로서 교통비절감과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됩니다.

안산은 2024년 현재 다문화학생 8,434명으로 그 비율이 전체 재학생의 14%(전국 다문화학생 비율 3.8%, 2023년 교육통계)를 넘었는데, 그 중 외국인 학생이 60.8%(5,235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 33.5%(2,667명), 중도입국학생: 5.7%(532명)).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 한국어수준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학생을 합친 약 66.5%, 즉 다문화학생의 2/3가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습득의 어려움으로 학습을 비롯한 교육관계 등 발달주기에 따른 과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시스템이 자리잡아 감으로써 한국어능력의 미비로 입학이 거부되거나 오랜 기간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외국인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과교사의 교육부담과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이 상당하였었는데 이를 한층 경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1>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 흐름도

저희 센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한국어랭기지를 단기위탁형 외에 입학 후 입학 전 전경다리과정으로 한국어예비학교(경기한국어랭기지를 학교밖유형, '20~현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 후 학습과 교육관계 등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이주청소년의 학교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대안교육기관(경기한국어랭기지를 장기위탁형, '16~현재)을 운영하여 적응력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원적교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유형인 예비학교는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전쟁, 행정체제문제 등의 이유로 입학서류가 미비한 경우 24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와 전과정 평균 60점 이상 한국어성취수준을 보이는 학생의 학력심의를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여 공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교육을 통해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적응지원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등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도 그 준비가 끝난 상태이며, 한국어교육지원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현장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반드시 정교하고 용이한 한국어수준 진단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민국민 미국과 캐나다 등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언어클리닉 과정도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길 기대합니다.

새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도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간 정체되었던 이주민가족과 청소년정책을 다시 살피고 전달체계를 정비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교육체계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산 세계소년소녀합창단 힘 모아요”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원 대부도 여름캠프 진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부도 일대에서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 23명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 창단한 안산시 홍보사절단이다. 다양한 국가의 유·청소년들이 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시의 상호문화 정책을 대내외로 알리고 있다. 이번 여름캠프는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연주회를 대비한 집중 연습을 포함해 대부도 청소년 자유공간 체험, 단합을 위한 레크리에

이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합창단원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합창단 모두가 힘을 합쳐 정기연주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단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음악적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개소 다함께돌봄·주거복지센터 갖춰

안산시는 29일 상록구 월피동 516-10에 건립한 '복지어울림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침체한 월피동 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791㎡로 건립된 이곳에는 ▲안산시주거복지센터 ▲월피어울림가치기움터 ▲안산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입주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과반과 지역사회 참여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피어울림가치기움터는 지역 내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원은 25명이며, 필라멘트 복지법인이 위탁 운영을 맡았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상담·정보 제공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사업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발굴사업 등을 담당한다.

송하성 기자

폭염 잇을 안산 물놀이터로 풍덩...다문화가족도 안산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놀자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여름, 안산 곳곳에서 무료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에어컨 바람 없이도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신나는 여름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안산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물놀이장을 주목해 봐도 좋다.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깝고 시원한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날리고,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안산의 물놀이장 네 곳을 소개한다.

■ 안산문화광장 물놀이터-평일 및 우천 시 휴무

안산문화광장(단원구 광덕대로 157) 물의광장(NC백화점 앞)에 위치한 첨병첨병 물놀이터는 8월 말일까지 매주 주말, 공휴일 12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물놀이터는 기존 연못형 수경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며, 광장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주변 상가에 먹거리도 많아 물놀이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어렵지 않다.

안산시는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매주 상수도를 교체하고, 수질검사와 저수조 청소도 병행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대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한편, 이곳에서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안산 서머 페스타’가 열릴 예정이다. 물놀이, 물총싸움과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의 장이 펼쳐지니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 와동공원 물놀이장-월요일 및 우천 시 휴무

7월 26일 개장한 와동공원 물놀이장(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은 8월 말일까지 운영된다.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는데 40분 운영 후 20분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무다.

물놀이장에는 그늘막과 탈의실을 갖추고 있고, 운영본부와 그늘 썬터들을 동시에 운영한다. 매일 소독 및 수질검사 실시 내용을 누리집에 게재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도 배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특히 올해는 폭염 저감의 일환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시원함을 더할 예정이다. 와동공원 내에는 생태곤충체험관이 있어 물놀이 후 곤충 전시도 관람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 공원·하천 등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월요일, 우천 시 휴무

세 군데 물놀이터 외 관내 6개 공원에서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노적봉공원(상록구 성포동 709) ▲반월공원(상록구 오목로 104) ▲성호공원(상록구 성호로 113) ▲성포공원(상록구 성포로 6) ▲둔배미공원(단원구 광덕2로 55)과 ▲화랑유원지(단원구 화랑로 259) 등에 마련된 물놀이터는 19일 개장해 내달 31일까지 운영된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40분 가동 후에는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안산천과 화정천에 마련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내달 1일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선부광장(선부광장로 68) ▲안산문화예술의전당(화랑로 312) 물놀이 시설과 함께 내달 31일까지 운영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위치한 물놀이 시설은 바다 음악분수로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19시부터는 야간조명까지 있어 분위기를 더한다. 매주 목요일은 시설관리를 위해 청소가 진행돼 저녁에만 이용할 수 있다. 예술 공연, 전시 관람과 더불어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송하성 기자



역사박물관 체험하며 한국 배우요

시흥시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역사기행-너나들이'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시흥 상공회의소와 1%복지재단 지원으로 지난 7월 12일과 19일,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 '한국역사기행-너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직접 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체험함으로써 한국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역사 기행이다.

첫날인 7월 12일에는 전곡선사박물관과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방문해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9일에는 6.25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독립운동의 역

사, 전쟁의 아픔 등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책에서만 보던 내용을 직접 보고 들으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였다"고 말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너나들이 프로그램은 8월과 9월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031-432-7994)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제9회 늑내클래식축제 가족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5년 시흥예술행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하고 (사)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가 주관하는 '제9회 늑내클래식 축제'가 오는 9월 6일 오후 5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늑내클래식 축제는 매년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회를 선보이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통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더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시흥시 음악협회 기악 분과장 신주용 지휘자와 연출가 정현호,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한층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시흥예총 아카데미 클래스 '오페라 합창' 수강생들이 함께 출연함으로써 진정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재 네이버(<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037579>)에서 예약할 수 있다. 예매 관련 문의는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031-404-6325)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립전통예술단,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공연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은계호수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시흥시립전통예술단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공연 '미래의 기억 II : 빛의 약속'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시흥시의 독립운동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해 행사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2023년 삼일절 기념공연 및 광복절 앙코르 공연으로 선보였던 '미래의 기억'을 광복 80주년에 맞춰 더욱 발전시켜 광복 투쟁을 담아낸 노래와 연주, 독립선언문 낭독, 무예 등을 포함한 드라마틱한 콘서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천 시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함께할 시민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모집하며, 시흥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홍보물이나 시흥시 블로그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할 수 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전통문화팀(031-310-6703)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정왕지역 환경과 일자리 위해 후원해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시흥시가족센터에 소중한 후원금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정왕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시흥시가족센터에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정왕지역 환경지킴이' 사업에 사용되며, 정왕본동 내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 및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구역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됐다.

이번 활동에는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15명이 참여

해 6월부터 7월까지 총 13일간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일자리 활동을 마친 뒤에는 원예 활동이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지사장이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한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참여했는데 올해 다시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거리 환경정화 활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참여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김광만 지사장은 "이번 '정왕지역 환경지킴이' 사업에 후원금이 크지 않지만, 이 작은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시흥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시흥시가족들이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름 있는 아름다운 정(情) 전해요”
다-가치유스센터 드림스쿨, 어르신께 부채 선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23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시설인 ‘다-가치유스센터 드림스쿨’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만든 전통 부채를 군서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지역 공동체의 이해와 화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색채와 문양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 부채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경

로 문화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지역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전통 예절을 체험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앞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가치유스센터’는 시흥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시설로, 공교육 진입을 돕는 맞춤형 교육과 적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과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시흥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가족코칭 상담사 파견 진행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다문화.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하나금융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맘 이음 어벤져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코칭 상담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현재 활동 중인 상담사 13명 전원은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다.

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 증진, 자존감 향상, 긍정적 자기표현’을 목표로 한 우리 아이 마음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참여한 아동 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해 운영한다. 부모와 자녀가 미술 활동을 통해 비언어적 소통을 경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총 5회기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난화 그리기 ▲색 소금 감정화분 만들기 ▲손 석고 본뜨기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며, 회기당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흥시 거주 다문화.외국인 가정은 다-가치유스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70-4269-822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앞으로 전문기관만 사업 참여 가능!...제도 개선 법안 통과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어요. 국회는 지난 7월 23일 임미에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로써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개선 2가지 법안이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어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유는?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기반 없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제도적 허점이 많았어요. 특히 브로커가 개입해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해도 법적 처벌이 쉽지 않았어요.

개정안의 내용은 뭐야?

앞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현장 맞춤형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체불, 질병·사망 등 상황을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예요. 모두 현장에서 제기된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이예요.

뭐가 달라진 거야?

앞으로는 법무부가 선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만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계절근로 사업에 끼어들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거나 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업체가 계절근로 사업에 개입하면 법적 처벌 받게 돼요.

그래도 아쉬운 점!

2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국인 농가를 위한 것이예요. 현재 계절근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이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래요. <중국어 18면, 러시아어 30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Immigrants are also Gyeonggi-do residents' Policy promotion to realize an inclusive society "Amazing" 경기도 이민사회국 포용사회 실현 정책 추진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immigrant population and create an inclusive society where all residents can live without discrimination, Gyeonggi Province established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in July 2024, the first of its kind among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fterwards, it established the 'Gyeonggi Province Comprehensiv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Plan (2025-2027)' and presented 33 tasks in four areas: ▲social integr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immigration policy ▲governance. Let's take a look at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Gyeonggi Province's immigration policy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launch of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Full-scale on-site support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begins

Gyeonggi Province established the Gyeonggi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in Uijeongbu City in July of this year. The Gyeonggi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is an organization that expanded and reorganized the functions of the 'Gyeonggi Foreigner Human Rights Support Center', and h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size of the office and more than doubled the number of personnel. In addition, multilingual counseling has been newly introduced. It provides customized services such as legal, labor, and living information in 10 languages that most immigrants use. Last year, more than 10,000 people received education and living grievance counseling support.

Gyeonggi Province plans to build an 'immigrant portal' that provides residence and living information in multiple languages and even has

community functions for each country by 2026 to help all immigrants settle down in the local community and increase digital-based information accessibility.

■Improving shelters and establishing industrial safety foundations

Gyeonggi Province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lan for migrant workers and is supporting the remodeling of 15 aging shelter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fire incident last year in which many foreign workers died, we plan to select 15 'happy workplaces' to prevent similar accidents and provide up to 10 million won per manufacturing company for improvement of workplac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We also formed a task force to resolve poor living environments such as vinyl greenhouse accommodations, and are conducting joint on-site inspections twice a year in cooperation with 31 cities and coun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We are currentl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migrant worker support center' specializing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upport for children with undocumented immigrant backgrounds

In the past, foreign children were not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and were not registered as residents, so local governments could not provide guidance on school enrollment, which resulted in many cases of foreign parents missing the timing for their children to enter elementary school.

Gyeonggi Province is the first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country to send admission notices to 2,037 immigrant children in February of this year in order to re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elementary schools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foreign

children who are confused due to not being able to know the status of their enrollment and the problem of foreign children being neglected without receiving admission notices.

In addition, in order to continuously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for unregistered foreign children, we propos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o extend the temporary residence period for ▲children born in Korea or entering the country as infants (under 6 years old) ▲children staying in Korea for 6 years or more ▲children attending or graduating from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in Korea, and this was accepted.

In addition, we are taking the lead in guaranteeing basic rights such as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rough the 'public verification system' that supports the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for children of unregistered immigrant backgrounds who have difficulty registering their birth.

■Expanding living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Gyeonggi Province has expanded the 10% discount on international express mail (EMS) fees, which was limi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to foreign residents through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Gyeongin Regional Post Office. The additional support targets are ▲foreign students (D-2, D-4) ▲foreign workers (E-8, E-9, H-2) ▲foreign nationals (F-1, F-2, F-3, F-4, F-5) ▲job seekers (D-10)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accounting for 85% of all foreign residents in Gyeonggi Province.

In August, they plan to operate a specialized counseling center for female migrant victims of violence, and in September, we plan to hold an immigrant community integration festival with immigrants, indigenous people, and youth from immigrant backgrounds,

in an effort to protect victims and strengthen community awareness.

■Strengthening the Attraction of Future Talent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Gyeonggi Province designed the 'Gyeonggi-do E-7 (Special Activities) Regional Visa' to meet the demand for manpower in industrial sites and attract excellent foreign talent. The Gyeonggi-do Regional Visa targets the Special Activities (E-7) visa field, such as advanced ICT and nursing, and has secured a regional visa quota for a total of 630 people, which is 52% of the national E-7 series quota (1,210 people).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and the 'Gyeonggi Province Foreign Student Support Ordinance' were enacted in June, and the 'Gyeonggi Province Foreign Student Support Center' was established to support excellent talents to settle and work stably in Gyeonggi Province.

Kim Won-gyu, the director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said, "Since the launch of th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we have been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create a society where residents and immigrants can grow together," and added, "We will continue to pursue immigration policies that lead the nation under the principle that 'immigrants are also Gyeonggi residents,' and realize an inclusive society where everyone is respected and can live together."

Aren't you surprised that Gyeonggi Province's immigrant-friendly policies are ahead of any other local government in Korea?

〈한글 기사 5면〉

경기다문화뉴스



경제적 어려움 겪는 부부 지원

시흥시, 다문화가정 등 대상 무료 결혼식 진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결혼식을 꿈꾸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미루고 있는 청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야외 결혼식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2018년 솔트베이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무료 합동결혼식>

우선 오는 8월 29일에는 솔트베이 골프클럽(시흥시 소재) 내 야외 웨딩홀에서 예비부부 2쌍을 대상으로 첫 무료 결혼식을 진행하며 현재 예비부부를 모집하고 있다. 결혼식에 필요한 드레스, 예복, 메이크업, 웨딩사진 촬영, 50인 규모의 피로연(식사 포함) 등은 솔트베이 골프클럽, (사)대

한미용사회 시흥시지부, 드레스 업체 르씨엘, 사회적기업 ㈜함께하자 등이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취약. 위기 가족 맞춤형 복지' 및 '결혼문화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형식과 비용의 부담 없이 존중받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는 8월 29일 첫 결혼식 이후에도 예비부부 총 10쌍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결혼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다문화가정 4쌍, 취약계층 4쌍, 취약계층 리마인딩 웨딩 2쌍이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까지며,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예비부부가 해당된다. 예식 장소, 예복, 메이크업, 피로연, 사진 촬영 등 결혼식 전반을 무료로 지원한다.

문의 031-433-5242 김영의 기자

시흥시 해양레저관광 운행 시작

전국 최초 전면 개방 시티투어 시범운행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 최초로 '전면(前面) 개방형(프런트오픈형)' 2층 버스 1대를 도입해, 오이도와 거북섬을 연결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에 나서며, 본격적인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시흥시는 도심과 해양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험 중심의 도시 브랜드 확장을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했다. 시는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시범 운행 기간으로 정하고, 노선 효율성과 탑승 수요, 관광객 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막차 탑승은 오후 7시다.

탑승은 지정좌석제가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별도의 예약 없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대기 후 승차하면 된다. 버스에는 장애인 좌석(1석)과 운전석(1석)을 포함한 총 66석이 마련돼 있다. 탑승 시에는 손목 표를 수령한 뒤 착석하면 되며, 시범 운행 기간에는 모든 이용객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운행 노선은 ▲거북섬홍보관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오이도박물관 ▲거북섬마리나를 거쳐 다시 거북섬홍보관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운영된다. 탑승객은 각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하차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시흥시는 시범운행 종료 후인 10월부터는 정식 유료 운행에 돌입하고, 시민과

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시티투어 버스는 시흥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첫걸음으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전략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입된 2층 버스는 국내 최초로 전면(前面) 개방형 구조(프런트오픈형)를 적용한 차량으로, 탑승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작용하는 체험형 도시관광 자산으로 차별화된다.

이번 순환형 노선은 오이도와 거북섬 등 시흥의 대표 관광 거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관광 동선 간 연계성을 높이고 관광 소비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다국어 음성 관광안내 시스템(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이 탑재돼 있으며, 전 회차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관광 해설과 안전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듣고 느끼는 '이야기하기형(스토리텔링형) 시티투어'로서의 지역 관광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시티투어 버스는 시흥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잇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의 상징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시흥형 관광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형 관광 콘텐츠로 시흥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솔트베이에서 결혼식 어떠세요?



• small special wedding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대상모집

솔트베이에서 아름다운 행사를 함께할 2쌍의 부부를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금) 오전 or 오후

시흥갯골생태공원 옆에 위치한 솔트베이 야외 예식 진행

예복, 메이크업, 사진촬영, 피로연(하객 50명이하) 무료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
(청년예비부부 포함)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지원

메이크업 지원 <(사)대한미용사회 시흥시지부>



드레스 지원 업체 <르씨엘>



문의전화 (주)함께하자 031-433-5242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뉴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광명시

경기다문화뉴스

Hãy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để được giảm giá lên đến 40% nhé~ 농축산물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해 줘요~

Nếu mua các sản phẩm nông sản và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bạn có thể được giảm giá lên đến 40%. Ngoài ra, tại các chợ truyền thống trên toàn quốc,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khi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bạn có thể được hoàn tiền lên đến 20.000 won dưới dạng phiếu mua hàng Onnuri.

Bắt đầu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giảm giá nông, lâm, thủy sản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ủy sản cho biết sẽ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hỗ trợ giảm giá nông, lâm, thủy sản mùa hè" trong 3 tuần từ ngày 17/7 đến ngày 6/8 nhằm giảm bớt gánh nặng chi phí sinh hoạt cho người dân trong và ngoài nước vào mùa hè.

Trong dự án này, hơn 12.000 cửa hàng phân phối trực tuyến và ngoại tuyến chuyên kinh doanh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sẽ tiến hành giảm giá tập trung vào các loại nông sản theo mùa.

Đặc biệt, các cửa hàng tham gia chương trình

giảm giá lần này bắt buộc phải thực hiện thêm chương trình giảm giá riêng của cửa hàng ngoài mức giảm giá của chính phủ, giúp giảm gánh nặng cho người tiêu dùng. Theo đó, trong thời gian diễn ra chương trình, người tiêu dùng khi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Hàn Quốc có thể được giảm giá lên đến 40%, với mức tối đa 20.000 won mỗi người mỗi tuần.

Tại cửa hàng ngoại tuyến, khi thanh toán sẽ được tự động áp dụng giảm giá, còn trên trực tuyến, bạn có thể nhận được ưu đãi bằng cách áp dụng phiếu giảm giá hỗ trợ giảm giá ở bước thanh toán.

Cũng tổ chức chương trình hoàn tiền tại chợ truyền thống

Chương trình cũng được tổ chức dành cho người trong và ngoài nước sử dụng chợ truyền thống. Trước đây, chợ truyền thống chỉ tổ chức chương trình hoàn tiền tại chỗ vào dịp lễ, nhưng từ ngày 4 đến ngày 9 tháng 8, chương trình hoàn tiền sẽ

được tổ chức trong 6 ngày tại 130 chợ trên toàn quốc.

Người tiêu dùng mua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của Hàn Quốc tại các chợ truyền thống sẽ nộp hóa đơn mua hàng tại quầy hoàn tiền và được hoàn trả số tiền tương đương 30% giá trị mua, tối đa lên đến 20.000 won dưới dạng phiếu mua hàng Onnuri.

Ông Hong In-ki, Cục trưởng Cục Chính sách Phân phối và Tiêu dùng thuộc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ủy sản Hàn Quốc cho biết: "Dự kiến chi phí thực phẩm của các hộ gia đình sẽ tăng trong kỳ nghỉ hè và kỳ nghỉ học sinh, vì vậy chúng tôi đã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hỗ trợ giảm giá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Ông cũng nói thêm: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hỗ trợ giảm giá nông sản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vào những thời điểm tiêu dùng cao hoặc khi giá cả tăng để giảm bớt gánh nặng vật giá cho người tiêu dùng." <한글 기사 3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Солонгосын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мал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худалдаж авбал хамгийн ихдээ 40% хөнгөлнө~ 제철 농산물 중심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진행

Солонгосы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болон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 худалдаж авбал хамгийн ихдээ 40% хүртэл хөнгөлөлт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Мөн улсын хэмжээн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уламжлалт захуудад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нд Солонгосын хөдөө аж ахуй,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 худалдан авсан тохиолдолд хамгийн ихдээ 20,000 вонын үнэтэй "Оннүри" бэлгийн картаар буцаан олголт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Хөдөө аж ахуйн болон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хөнгөлөлтийн хөтөлбөр хэрэгжиж байна

Хүнс, хөдөө аж ахуй, ойн болон загас агнуурын яамнаас 7-р сарын 17-наас 8-р сарын 6-ны хооронд 3 долоо хоногийн турш дотоод,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зуны улирлын үнийн дарамтыг буур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Зуны амралтын үеийн хөдөө аж ахуй,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хөнгөлөлтийн дэмжлэг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гаа мэдэгдлээ.

Энэ удааг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хүрээнд Солонгосын хөдөө аж ахуй,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 худалдаадаг 12,000 гаруй онлайн болон офлайн худалдааны цэгүүдээр улирлын шинж чанартай бүтээг

дэхүүнийг төв болгон хөнгөлөлттэй худалдаа явуулж байна.

Ялангуяа энэ удаагийн хөнгөлөлтийн арга хэмжээнд оролцож буй худалдааны газрууд нь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өнгөлөлтөд нэмэлт болгон өөрсдийн дотоод хөнгөлөлтийг заавал хэрэгжүүлэх журамтай тул хэрэглэгчийн зардлыг илүү бууруулах боломж бүрдсэн байна. Үүний дагуу, энэхүү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хугацаанд хэрэглэгчид Солонгосы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болон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 худалдан авбал долоо хоногт нэг хүнд 20,000 вонын дотор хамгийн ихдээ 40% хүртэл хөнгөлөлт эдлэх боломжтой.

Офлайн дэлгүүрт төлбөр хийхэд автоматаар хөнгөлөлт хэрэгжиж, онлайнд хөнгөлөлтийн дэмжлэгийн купоныг төлбөрийн шатанд хэрэглэвэл урамшуулал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Уламжлалт зах дээр мөнгөн буцаан олголтын арга хэмжээ бас явагдаж байна

Уламжлалт захуудыг ашигладаг дотоод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төлөөх арга хэмжээг мө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Уламжлалт захууд дээр өмнө нь зөвхөн баярын үеэр бэлэн мөнгө буцаан олгох а

рга хэмжээ явуулдаг байсан бол энэ удаад 8-р сарын 4-өөс 9-ний хооронд нийт 6 өдрийн турш улс даяар 130 гаруй зах дээр буцаан олголтын арга хэмжээ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аар болсон байна.

Уламжлалт захуудаас Солонгосын хөдөө аж ахуй,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 худалдан авсан хэрэглэгчид худалдан авалтын баримтаа буцаан олголтын цэгт өгч, худалдан авалтын дүнгийн 30%-тай тэнцэх мөнгийг хамгийн ихдээ 20,000 вонын "Оннүри"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карт хэлбэрээр буцаан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Хүнс, хөдөө аж ахуйн яамны б орлуулалт, хэрэглээний бодлогын хэлтсийн дарга Хон Ин-Ги "Сургууль амрах болон амралтын улиралд гэр бүлийн хүнсний зардал өсөх төлөвтэй байгаа тул хөдөө аж ахуй,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хөнгөлөлтийн дэмжлэг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боллоо. Цаашид хөдөө аж ахуй, малын гарал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хэрэглээ ихсэх эсвэл үнэ өсөх үед энэхүү хөнгөлөлт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үргэлжлүүлж, хэрэглэгчдийн үнийн дарамтыг бууруулах болно" гэжэ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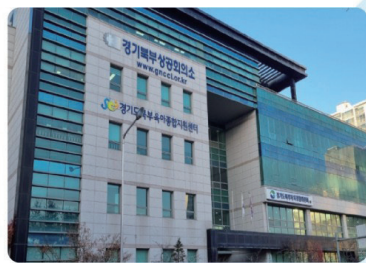
<한글 기사 3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상담 업무 안내

언어	따갈로그어(영어), 우즈베크어(러시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라오스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요일	일요일~목요일 (금, 토요일 제외)	일요일~수요일 (목, 금, 토요일 제외)
시간	09시30분~17시30분	월요일~수요일 : 13시30분~17시30분 일요일 : 09시30분~17시30분



- ☎ 전화상담 1661-0222 (언어별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 📍 경기도 의정부 추동로 140, 2층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Gyeonggi Migrant Integration Support Center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상담 업무 안내 (수원)

언어	한국어, 중국어
요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시간	13시30분 ~ 17시30분



- ☎ 전화상담 1661-0222 (언어별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사 2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Gyeonggi Migrant Integration Support Center

태국어

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 ให้กับเด็กอพยพ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



ระยะเวลาโครงการ

กุมภาพันธ์ - ธันวาคม ปี 2568
(สามารถยืดหยุ่นก่อนกำหนดได้เมื่อเป็นเหตุจำเป็น)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ารสนับสนุน

-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ในกรณีฉุกเฉิน/เจ็บป่วยร้ายแรง (สูงสุด 5 ชั่วโมง)
-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จำนวนเงินเล็กน้อย (สูงสุด 1 ชั่วโมง)
-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ตั้งท้องและการคลอดลูก (สูงสุด 3 ชั่วโมง)
- การฉีควัคซีนที่จำเป็น (สูงสุด 3 แผนวอน)

เอกสารที่ต้องส่ง

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แห่งกรุงโซล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ภิบาลผู้อพยพ อังซึงฮอนเพจ (www.seoulmigrant.net)



คุณสมบัติ

เด็กอพยพที่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ซึ่งไม่ได้เข้าเรียน มีอายุต่ำกว่า 0 ถึง 6 ปี (ทั้งประเท)

วิธีการสมัคร

หลังจากคัดเลือกผู้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ผ่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ตรวจสอบทุกต้นเดือนแล้ว คำป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จะถูกโอนไปยั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 *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คัดเลือกผู้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ดือนละครั้ง ในกรณีฉุกเฉินก็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ได้ตลอดเวลา

องค์กรเจ้าภาพ

โรมันคาทอลิก อัครสังฆมณฑลแห่งกรุงโซล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ภิบาลผู้อพยพ ☎ 02-953-0468

ฟิลิปปิน

Programang Suporta Para sa Medikal na Gastosin ng Mga Batang Migrante na Hindi Dokumentado



Panahon ng Programa

Pebrero ~ Disyembre 2025
(Maaaring matapos nang maaga kapag naubos na ang pondo)

Saklaw ng Suporta

- Medikal na gastos sa emergency at malubhang kalagayan (hanggang 5,000,000 won)
- Pang-maliitang medikal na gastos (hanggang 1,000,000 won)
- Medikal na gastos na may kinalaman sa pagbubuntis at panganganak (hanggang 3,000,000 won)
- Kinakailangang bakuna (hanggang 300,000 won)

Kailangang Dokumento

Sumangguni sa website ng Catholic Archdiocese ng Migrant Pastoral Committee ng Seoul (www.seoulmigrant.net)



Mga Benepisaryo

Mga batang migrante na hindi dokumentado na hindi pa pumapasok sa paaralan, edad 0 ~ 6 taon (buong bansa)

Paraan ng Pag-apply

Sa simula ng bawat buwan, ang Review Committee ay pipili ng mga benepisaryo, at ang pondo para sa medikal na gastusin ay ipapadala sa ospital kung saan nagpapagamot

*Ang pagsusuri at pag-apruba ng mga kwalipikadong benepisyo ay isinasagawa isang beses sa isang buwan, ngunit para sa mga emergency na mga kaso, ito ay isinasagawa anumang oras.

Host na Organisasyon

Catholic Archdiocese of Seoul's Migrant Pastoral Committee ☎ 02-953-0468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삶의 활력 충전!

시흥외복, 외국인주민 평생교육 하반기 프로그램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최근 외국인주민 평생교육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외국인주민 평생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과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에 컴

퓨터(ITQ엑셀기초), 영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 홈 베이킹, 요가, 매트 필라테스, K-POP댄스, 힐링원예로 총 8개 강좌를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10월에는 바리스타, 가죽공예, 미디어 콘텐츠가 추가로 개강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자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도 시흥서 평생학습 참여해요~

대야·정왕평생학습관,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모집



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시흥시 대야 정왕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5일부터 10~12주간 운영되며, 연령과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강좌로 구성됐다.

대야평생학습관에서는 ‘원예 치료’, ‘치유 악기 우쿨렐레’, ‘영어 통번역사 3급’ 등 40개 강좌가 개설되며, 정왕평생학습관에서는 ‘먹물 향 가득 한자서예’, ‘제빵 기능사 실기’, ‘말하기 기술’ 등 41개 강좌가 운영된다.

특히 최근 수요가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챗 지피티) 활용하기’, ‘콘텐츠 제작도구(미리캔버스) 정복하기’ 등 디지털 실용 강좌와 함께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교양 강좌도 다양하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수강 신청은 ‘시흥교육캠퍼스 쪽(SSOC)’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8월 20일 밤 9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단, 실용 과정 강좌는 하루 늦은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흥시

민 및 관내 사업장 재직자를 우선 선발한다. 관외 시민은 8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강좌는 신규 수강생을 우선으로 선발해 더욱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강의 일정 및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교육 캠퍼스 쪽(SSO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야평생학습관(031-310-2512~3), 정왕평생학습관(031-310-60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똑똑한 학습’ 하반기 학습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학습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그룹은 장애인을 50% 이상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그룹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는 지난 2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진로·직업탐색 평생학습 영역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똑똑한 학습’ 역시 그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총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하반기에는 1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고영란 시흥시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시흥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연탄쿠폰사업 26일까지 접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8월 26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연탄쿠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탄 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인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단, 가정용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 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나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이미 발급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1-310-3673

김영의 기자

주민 체감형 주거복지 실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2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주민 체감형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적급여 외에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액 상향,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시는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가족코칭상담사 파견사업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함께 그리는 우리'



상담대상 : 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외국인 주민

* 부모-자녀 모두 참여!

상담방법 :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상담장소 : 정왕동 본관 및 다-가치자람터(능곡동)

상담회기

회기	진행 내용
1	빙글빙글 그림(무언 그림 돌려 그리기)
2	알록달록 감정(색 소금 감정화분)
3	맞잡은 두 손1(척고봉대 손 본 뜨기)
4	맞잡은 두 손2(척고 색칠하기)
5	찰라! 우리 가족 사진(OHP필름 가족화)

상담비용 : 무료

신청방법 : 전화(070-4269-8227)



운전면허 취득으로 취업 기회 확대
파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 대비반

파주시가족센터는 파주경찰서 교통과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이동PC 및 교육 지원으로 지난 6월 23일과 26일, 7월 10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돕고 면허를 취득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은 한국말에서 툰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4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외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

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참여했다. 파주경찰서는 한국어로 시험을 봐야 하는 캄보디아, 몽골 참가자에게 통역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펼쳤다.

7월 10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참가한 A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받을지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올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은 종료되지만, 내년에도 파주시 관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外国人季节劳动制度, 今后只有专门机构才能参与!



韩国的外国人季节劳动者制度具备了法律基础。今年7月23日, 国会通过了国会议员林美爱(比例代表)代表提议的《农渔业雇佣人力支援特别法部分修改法案》。至此到7月3日国会通过的《出入境管理法修订案》为止, 外国人季节劳动者相关制度改善2项法案全部完成了立法程序。

为什么建立法律基础?

现行的季节劳动者制度是为了解决农渔村地区的慢性人力困难而引进的, 但是到目前为止没有法律基础, 而是根据法务部的方针运营, 因此制度上存在很多漏洞。

特别是即使中间人介入剥削季节劳动者的工资或侵犯人权, 法律处罚也不容易。

修正案的内容是什么?

之前通过的出入境管理法修订案包含了▲制定季节劳动制度的法律依据▲指定季节劳动者专门机构▲新增对中间人处罚条款等内容。

此次通过的农渔业雇佣人力支援特别法修订案可以说是实质性弥补这一缺陷的“现场定制型法案”, 从其内容来看▲新设外国人季节劳动者定义▲引进标准劳动合同▲应对拖欠工资、疾病·死亡等情况的投保义务化▲为公共型外国人季节劳动工作场所指定提供法律依据等。这些都是为了改善现实中存在的劳动条件和人权问题而制定的。

有什么变化?

今后只有法务部选定的季节劳动专门机构才能参与季节劳动项目。现在虽然任何人都可以介入季节劳动项目, 连接韩国地方自治团体和海外地方自治团体或代理接收文件等工作, 但从明年开始禁止这种行为。如果非季节劳动专门机构的企业介入季节劳动项目, 将受到法律处罚。

仍然存在的遗憾!

虽然庆幸通过了2个法案, 奠定了外国人季节劳动项目的法律基础, 但这毕竟是为了国内农户。目前对担任季节劳动项目一大支柱的结婚移民者及其家属没有照顾。

因此韩国政府和地方自治团体考虑到很多结婚移民者及其家人参与季节劳动项目的现实, 希望改善制度, 使他们能够以较低的费用在想要的地区参与季节劳动项目。〈한글 기사 12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이주민, 인권교육으로 스스로 보호

파주시가족센터, 외국인주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파주지역 내 외국인 과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주민이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 인권침해, 고용허가제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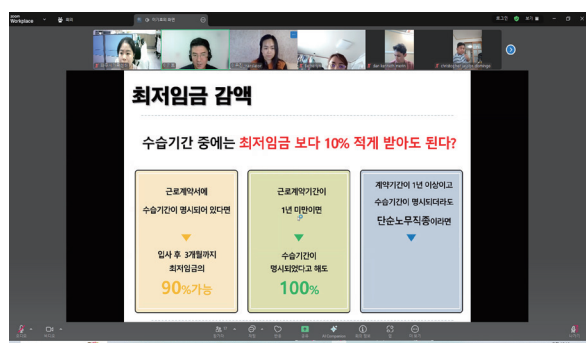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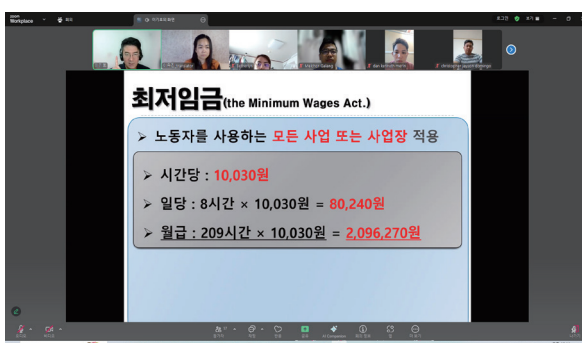
이번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안내 ▲가족폭력·성폭력 예

방 ▲차별 방지 교육 ▲이주민 정책 정보 등을 포함한 통합형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외국인주민이 체류 기간 더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역 및 기관 연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외국인주민 또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며,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더 많은 이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외국인주민 인권교육 관련 사항은 파주시가족센터 (031-949-91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이주민이 한국에서 중고책을 파는 방법, 중고서점 이용 후기

Как продать подержанные книги в Корее? Мой опыт с Aladin

Если у вас дома есть ненужные книги, не спешите их выбрасывать. В Корее работает система перепродажи через магазин Aladin. Так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подарить книгам вторую жизнь, но и заработать на этом.

Вот как это работает:

1. Скачайте приложение «알라딘»

Оно доступно в Play Market или App Store. Интерфейс на корейском, но всё понятно интуитивно.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понадобится корейски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Если у вас его нет –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помощи у друга-корейца.

2. Зайдите в раздел «중고 팔기» (продажа б/у)

Там можно отсканировать штрих-код книги или ввести название вручную, чтобы узнать, сколько за неё дадут.

3. Выберите способ сдачи

Мож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тправить книги почтой (почта бесплатная, если сдаешь от 3 книг), либо отнести в ближайший офлайн-магазин Aladin. Если состояние книги не устроит магазин, её отправят вам обратно.

4. При отправке почто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ниги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их проверят –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и. Деньги зачислят на алладин-кошелек или на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5. При личном посещении магазина

Возьмите номерок и ожидайте своей очереди. Сотрудник проверит состояние книг (отличное/хороше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е) и предложит цену. Деньг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личными или на баллами алладин-кошелек. Баллы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окупку других книг в магазине.

Совет

Лучше всего принимают книг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Книгу не получится сдать, если издание слишком старое, или в магазин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же есть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же книг. Примут ли книгу и сколько за неё можно получить – 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заранее в приложении.

Мой опыт

На днях я сама попробовала сдать четыре книги в магазин Aladin в городе Коян. Книги были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а процесс сдачи занял не более 5 минут. За все книги мне заплатили 5,200 вон. Сумма небольшая, но я рада, что книги получат вторую жизнь и не будут пылиться у меня на полках.

집에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이 쌓여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알라딘(알라딘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책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에 두 번째 생명을 주는 동시에 소소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알라딘 중고책 판매 절차입니다:

1. '알라딘' 앱 다운로드

알라딘 앱은 Play 스토어 또는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직관적인 구성이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한국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없다면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중고 팔기' 메뉴 이용

앱 내 '중고 팔기' 메뉴로 들어가면, 책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제목을 직접 입력하여 책의 예상 매입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책을 보내는 방법 선택

책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택배 발송: 3권 이상일 경우 무료로 발송할 수 있으며, 알라딘에서 상태 확인 후 책을 매입합니다. 단, 책 상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 가까운 알라딘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책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4. 택배로 보낼 경우

책이 도착하면 알라딘에서 상태를 확인한 후, 책값을 '알라딘 캐시'나 은행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책 상태는 깨끗해야 하며, 낙서나 훼손이 심한 경우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매장 방문 시 절차

매장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합니다. 직원이 책의 상태를 확인한 뒤 (최상/상/중) 매입 여부와 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매입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알라딘 캐시'로 받아서 다음 책 구매 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

한국어로 된 책, 상태가 좋은 책이 가장 잘 팔립니다. 책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같은 책이 이미 매장에 여러 권 있을 경우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미리 매입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 후기

최근 집 근처에 있는 알라딘 매장에서 중고책 4권을 직접 판매해 보았습니다. 책 상태는 좋고, 전체 과정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 5,200원을 받았고, 책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간도 정리되고, 환경도 생각하는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Saldaeva Ekaterina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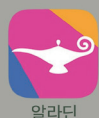
Дома копятся книги, которые уже не читаешь? Не спеши выбрасывать!

В Корее работает система перепродажи через магазин Aladin

1. Скачай приложение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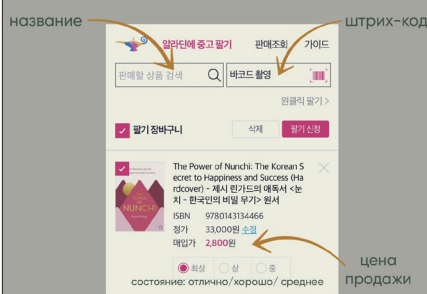
доступно в App Store и Play Market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ужен корейски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2. Зайди в раздел 알라딘에 중고 팔기

отсканируй штрих-код или введи название книги, чтобы узнать, сколько за неё дадут



3. Выбери способ сдачи: почта или магазин

отправка по почте бесплатная, если сдаешь больше 3 книг за раз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ниги проверят, деньги поступят на алладин-кошелек или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либо можно сдать книги в ближайший офлайн-магазин



4. В магазине возьми номерок

когда подойдет очередь, сотрудник проверит состояние книг



книги не примут, если это устаревшее издание, либо этих книг уже много в магазине – проверить можно в приложении



Hướng dẫn đăng ký

Nhập hộ khẩu người nước ngoài & Đăng ký người phụ thuộc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경기외국인

01 Đơn đăng ký

[Nhập hộ khẩu người nước ngoài]
Đơn khai bá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địa phương

[Người phụ thuộc]
Đơn khai báo đăng ký/hủy bỏ người phụ thuộc

Lưu ý về giấy tờ cần chuẩn bị:

- Hiệu lực: 3 tháng kể từ ngày cấp (3 tháng với giấy tờ trong nước, 9 tháng với giấy tờ nước ngoài)
- Giấy tờ cần có đủ họ tên và ngày tháng năm sinh
- Với giấy tờ nước ngoài, cần có giấy tờ gốc và bản dịch tiếng Hàn, phải có Apostille hoặc xác nhận lãnh sự
- Trường hợp không phải tiếng Hàn, cần có công chứng của công ty luật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xác nhận bản dịch của văn phòng dịch thuật công chứng.

경기외국인

02 Giấy tờ chứng minh

① Trường hợp người đăng ký là người cư trú tại địa phương (Nhập hộ khẩu)

- Vợ/chồng: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chỉ tiết)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 Người thân trực hệ (cha mẹ, con cái):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giấy khai sinh, giấy xác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 Nếu chủ hộ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hỉ có thể đăng ký cho vợ/chồng và con cái dưới 19 tuổi.

경기외국인

03 Giấy tờ chứng minh

② Trường hợp người đăng ký là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lao động (Người phụ thuộc)

- Vợ/chồng: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chỉ tiết)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 Người thân trực hệ (cha mẹ, con cái):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và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chỉ tiết)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và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 Các giấy tờ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được cấp dưới tên người phụ thuộc.
* Trường hợp nam giới từ 30 tuổi trở lên, nữ giới từ 28 tuổi trở lên, cần có giấy tờ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경기외국인

04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từng khu vực

Nộp Đơn đăng ký & Giấy tờ chứng minh trực tiếp hoặc gửi tin nhắn fax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Ansan (Ansan, Siheung, Gunpo, Uiwang, Gwacheon)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Incheon (Incheon, Bucheon, Gwangmyeong, Gimpo)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Suwon (Suwon, Yongin, Hwaseong, Osan, Pyeongtaek, Anseong, Icheon, Gwangju (Gyeonggi), Yeosu)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Uijeongbu (Uijeongbu, Namyangju, Gapyeong, Pocheon, Dongducheon, Yeoncheon, Yangju, Guri, Paju, Goyang, Yangpyeong)

Bạn có thể chụp ảnh tài liệu bằ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và gửi qua tin nhắn fax. Chú ý là chỉ có thể đính kèm tối đa 4 trang trong một lần!
(Nếu có hơn 4 trang, vui lòng gửi nhiều lần)

경기외국인

05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Ansan



Ansan, Siheung, Gunpo, Uiwang, Gwacheon

- Địa chỉ: Tầng 4, 366 Hwara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1 Ga Gojan (Tuyến 4)
- Tin nhắn fax: 1668-5197

경기외국인

06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Incheon




Incheon, Bucheon, Gimpo, Gwangmyeong

- Địa chỉ: Tầng 13, Woori M-Lion's Valley, 88 Bupyeongdae-ro, Bupyeong-gu, Incheon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1 Ga Bupyeong Sijang (Tuyến 1 tàu điện ngầm Incheon)
- Tin nhắn fax: 1668-5210

경기외국인

07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Suwon



Suwon, Yongin, Hwaseong, Osan, Pyeongtaek, Anseong, Icheon, Gwangju (Gyeonggi), Yeosu

- Địa chỉ: Tầng 1, Tòa nhà Cheongwon, 119 Hyowon-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5 Ga Maegyo (Tuyến Bundang)
- Tin nhắn fax: 1668-5198

경기외국인

08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Uijeongbu



Uijeongbu, Namyangju, Gapyeong, Pocheon, Dongducheon, Yeoncheon, Yangju, Guri, Paju, Goyang, Yangpyeong

- Địa chỉ: Tầng 9, Central Tower, 80 Simin-ro, Uijeongbu-si, Gyeonggi-do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2 Ga Uijeongbu (Tuyến 1)
- Tin nhắn/Fax: 1668-5931

경기외국인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가족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파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주배경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정착 과정을 설계하고, 역량을 강화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5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는 현재의 삶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

래 설계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길찾기(괜찮은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월에는 '길찾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 전통 요리교실이 3회에 걸쳐 운영되어 이주여성들이 한국 요식에 대한 이해와 실습 경험을 쌓았다. 8월에는 미래 설계(미래 찾기) 프로그램이 3회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가족센터(031-949-916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여름 해외여행 시 감염병 주의해요”

파주보건소, 이주민도 감염병 발생 위험 유의해야



파주보건소는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흥역,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여행 전 질병관리청 누리집 해외감염정보에서 여행지별 감염병 발생상황과 예방수칙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출국 최소 2주 전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여행 중에는 모기 등 매개체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낙타·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안전한 식수 및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행 후에는 감염병 위험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건강상태질문서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Q-CODE)를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방문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여름휴가철은 해외 방문이 잦아지는 시기로,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예방수칙 및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1339 전화 상담실) 및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031-940-97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여름 에너지복지 강화 취약계층에 냉방비 긴급지원해



파주시는 역대급 무더운 날씨 속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8,685 가구이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9억 3,425만 원을 투입해 지원되며,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장애인 냉방비 지원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계좌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신청 및 접수 안내를 통해 계좌를 파악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팀)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냉방비 걱정을 덜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 취약계층에 농산물 가득 ‘신선한 식탁’ 제공해

파주시는 지난 30일 ‘신선한 식탁’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관내 취약계층 100가정에 전달하였다.

‘신선한 식탁’은 경기도와 ㈜이마트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 경기도 내 각 지역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파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채소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선한 식탁’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00만 원으로, 100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감자, 당근, 대파, 애호박, 방울토마토, 참외, 양배추 총 7종으로 구성된 꾸러미가 전달됐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신선한 식탁’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노동자도 더울 때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최근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올해 23살인 이 외국인 노동자는 낮 기온이 37.2도인 무더위에서 일을 하다가 앉아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당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고 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을 일하면 반드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확정했어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

상)'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번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규칙을 개정한 것이예요.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예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의 내용을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예요.

요. 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특히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어요.

폭염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몸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휴식을 요청하세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나기를 바래요.

<중국어 하단, 태국어 하단,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外国劳动者在酷暑中一定要每两小时休息20分钟以上... 移动式空调到7月末普及

最近某公寓工地发生了20多岁外国劳动者因温热疾病死亡的事件, 让很多人心痛。这名今年23岁的外国劳动者在白天气温37.2度的酷暑中工作时被发现坐着死亡。据说当时这个外国劳动者的体温达到了40.2度。

此次事件发生后, 韩国政府决定强制执行一项新规: 当体感温度达到33度以上时, 劳动者每工作两小时必须休息20分钟以上。

雇佣劳动部在11日召开的规制改革委员会上通过了将“每2小时休息20分钟以上(体感温度33度以上)”等

义务化的《产业安全保健标准相关规则》修订案。由于今年夏季酷暑程度超出预期, 为了保护劳动者的生命与健康, 政府迅速修订了相关规定。

特别是雇佣劳动部计划努力在现场遵守《产业安全保健标准相关规则》修订案的主要事项。

计划在现场必须遵守的“酷暑安全5大基本守则”▲凉水▲冷气装置▲每2小时休息20分钟以上▲发放保冷装备▲119报警等内容, 利用所有媒体积极宣传。

另外决定以6万家酷暑高危企业为中心, 对是否遵

守“酷暑安全5大基本守则”进行突击指导和检查。

特别是以小型企业为中心, 到7月末为止, 将投入包括追加更正预算在内共350亿韩元, 完成现场需求较多的移动式空调等的普及工作。

在酷暑中辛苦工作的外国劳动者, 如果感到身体疲惫, 一定要要求休息。希望在韩国工作的外国劳动者都能度过健康的夏天。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ต้องหยุด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 ทุก ๆ 2 ชั่วโมง ในช่วงอากาศร้อน 고용노동부 관련 규정 개정

เหตุการณ์ล่าสุดที่ไซต์ก่อสร้างอพาร์ทเมนต์แห่งหนึ่ง ซึ่ง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ายุ 20 ปี เสียชีวิตจากอาการป่วย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ร้อน สร้างความสะเทือนใจให้กับผู้คนจำนวนมาก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วัย 23 ปีรายนี้ ถูกพบว่าเสียชีวิตขณะนั่งอยู่ในที่ทำงาน ท่ามกลางอากาศ ร้อนจัดที่อุณหภูมิสูงถึง 37.2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ในช่วงกลางวัน ขณะเกิดเหตุ อุณหภูมิร่างกายของเขาสูงถึง 40.2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จากเหตุการณ์ที่เกิดขึ้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ใต้ได้ตัดสินใจออกมาตรการบังคับใหม่ โดยระบุว่า หากอุณหภูมิความร้อนที่รู้สึกได้สูงเกิน 33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จะต้องให้แรงงานหยุด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ทุก ๆ 2 ชั่วโมง ข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

เมื่อวันที่ 11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ได้ผ่านการแก้ไข “กฎระเบียบ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ละอาชีวอนามัย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ฏิรูปกฎระเบียบซึ่งกำหนดให้ “ต้องหยุด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 ทุก 2

ชั่วโมง (เมื่ออุณหภูมิความร้อนที่รู้สึกได้ สูงเกิน 33 องศาเซลเซียส)”

ช่วงฤดูร้อนปีนี้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ที่รุนแรงกว่าที่คาดการณ์ไว้ได้แพร่กระจายออกไป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รัฐบาลจึงได้เร่งปรับปรุงกฎระเบียบเพื่อ ปกป้องชีวิตและสุขภาพของแรงงา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วางแผนที่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ให้แน่ใจว่าบทบัญญัติหลักของ “กฎระเบียบ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ละอาชีวอนามัย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ฉบับปรับปรุงนี้ได้รับ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จริง

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อย่างเต็มที่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ผ่านสื่อต่าง ๆ เพื่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 “กฎ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พื้นฐาน 5 ประการ 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ที่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ได้แก่ ▲น้ำเย็น

▲อุปกรณ์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 ▲พักอย่างน้อย 20 นาที ทุก ๆ 2 ชั่วโมง ▲จัดหา

อุปกรณ์ทำความเย็น ▲แจ้งเหตุฉุกเฉิน 119 เป็นต้น

นอกจากนี้ จะมี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และควบคุมแบบไม่แจ้งล่วงหน้า โดยมุ่งเน้นไปที่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สูง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จำนวน 60,000 แห่ง เพื่อให้มั่นใจว่าปฏิบัติตาม “กฎ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พื้นฐาน 5 ประการ 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จะมีการจัดหา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เคลื่อนที่และอุปกรณ์ที่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สูง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ขนาดเล็กเป็นหลัก โดยใช้งบประมาณเพิ่มเติมรวม 35 พันล้านวอน ภายในสิ้น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กำลังทำงานอย่างหนักท่ามกลาง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โปรดขอหยุดพักหากรู้สึกเหนื่อยล้าทันที ขอให้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กท่าน ที่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มีสุขภาพแข็งแรง และผ่านช่วงฤดูร้อนนี้ไป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은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김동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 참석해 역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7월 24일(목)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

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는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

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신청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또는 기관

서비스언어
베트남어 / 중국어

서비스기간
연중 (이용시간 평일 월~금 9~6시까지)
*정심시간(12~1시) 제외

서비스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통번역
- *임산·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법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제외)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신청방법

전화, 팩스 또는 내방 신청서 작성

☎ 중국어 | 070-4457-6106
☎ 베트남어 | 070-4457-6107

☎ 전화번호 | 032-327-1370
☎ 팩스번호 | 032-325-1371
✉ 이메일 | bcmfsc@hanmail.net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NAVER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CHO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để hỗ trợ giao tiếp cần thiết trong sinh hoạt gia đình và xã hội cho những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không biết tiếng Hàn

Đối tượng đăng kí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và tổ chức đa văn hóa

Ngôn ngữ tiếng Việt Nam / tiếng Trung Quốc

Thời gian hỗ trợ liên tục trong năm

Nội dung

- Thông biên dịch từ văn bản đầu về sự khác biệt văn hóa giữa các quốc gia và sinh hoạt gia đình
- Cung cấp thông tin về lưu trú, quốc tịch, hỗ trợ định cư cho người kết hôn
- Thông biên dịch nội dung từ văn và hướng dẫn thông tin trong sinh hoạt như là thai sản, sinh con, dưỡng dục con cái
- Hỗ trợ thông dịch về quá trình giáo dục
- Thông dịch trong gia đình
- Thông dịch khi sử dụng các cơ quan hành chính, tòa án (trừ công chứng)
- Thông dịch hỗ trợ như ở tòa án, trạm y tế, đồn cảnh sát, trường học và những cơ quan (trừ công chứng)
- Hỗ trợ thông biên dịch khi gặp khẩn cấp
- Ngoài ra, hỗ trợ thông biên dịch được ủy quyền bởi các cá nhân hoặc tổ chức trực tiếp hoặc gián tiếp hỗ trợ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v.v.

Đăng kí

- Điện thoại, gửi fax, đến trung tâm viết giấy đăng kí
- 070-4457-6106(tiếng trung) / 070-4457-6107(tiếng việt nam)
- số fax: 032-325-1371 / email: bcmfsc@hanmail.net

tiếng việt nam | 070-4457-6107

结婚移民者翻译服务事业

为了帮助韩语不熟练的结婚移民者的家人·社会生活所必须的沟通而提供给您们的翻译服务事业

申请对象 结婚移民者以及多文化家庭或者机关

提供语言 越南语/中国语

提供时间 全年

提供内容

- 家庭生活及国家间的文化差异等的入国初期面谈翻译
- 翻译结婚移民者定居支援, 国籍·滞留关联的相关信息
- 怀孕·出生·养育等生活信息介绍以及面谈内容的翻译
- 为您提供教育过程的翻译
- 翻译家人间的交流沟通
- 利用行政, 司法机关单位时也可以为您提供翻译(公证除外)
- 利用法院, 保健所, 警察局, 学校等公共机关时, 也可以为您提供免费的翻译(公证除外)
- 其它多文化家庭 直接或间接的支援的个人或者在机关委托的翻译业务等

申请方式

- 电话, 传真或者填写来咨申请书
- 070-4457-6106(中国语) / 070-4457-6107(越南语)
- 传真号码: 032-325-1371 / 邮箱: bcmfsc@hanmail.net

中国语 | 070-4457-6106



'국적과 언어 넘어 외국인주민 함께 한 여름캠프'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7개국 90여명 이주민 참여 여름캠프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백선기)는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7개국 출신 외국인주민 90여 명과 함께 충남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신두리 해안사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해수욕은 물론, 7개국이 섞인 다국적 팀으로 진행된 공

동체 게임,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상호문화 이해와 유대감을 나눴다.

캠프에 참가한 한 외국인주민은 “외국인이라도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게임과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선기 센터장은 “이번 여름캠프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간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동체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프는 부천시 지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박종현 의장),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손인환 원장(손인환 한의원), 이용연 대표(경연정밀금속), 국중근 대표(TK 모터스), 김학무 변호사(법무법인 부원), 정연중 대표(지 박스), 김영철 본부장(부천디딤병원), 양준모 대표(복사골문화사), LOAN QUÂN 아시아마켓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운영됐다.

김영의 기자

이주민 '한국어 교실' 부천시외국인주민센터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백선기)는 오는 8월 3일부터 2025년 하반기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8월 31일 개강해 12월 1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 언어로 인한 갈등 해소, 한국 사회 조기 정착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 교실'은 주중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수강생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총 6개 반으로 나뉘며, 오전반(10:00~12:00)과 오후반(13:00~15:00)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및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면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32-654-0664

김영의 기자

부천시 빛난 한중일 청소년 우정

부천시, 제21회 부천국제청소년홈스테이 환송식

부천시는 지난 29일 부천시청 소토마당에서 '제21회 부천국제청소년홈스테이 환송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하얼빈과 웨이하이, 일본 오카야마 청소년들이 참여해 부천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친 뒤 6박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천국제청소년홈스테이'는 2003년 시작해 올해로 21회를 맞은 부천시의 대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국외 우호도시와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부천 시립박물관과 한옥마을 등 부천의 대표 명소를 탐방하고, 태권도와 K-POP 댄스 등을 체험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두루 경험했다. 또한, 부천 청소년 가정에서 머물며 일상을 공유하고 우정을 쌓았다.

환송식에서는 홈스테이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각 도시 참가자가 소감을 발표했다.

이어 참가 청소년들이 교류도시 참가

자들과 함께 준비한 춤과 노래 등의 장기자랑 무대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수여해 교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쳤다.

홈스테이에 참가한 한 국외 청소년은 “한국 친구를 사귀고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참가했다”며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한국 친구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해줘 감사했다”고 말했다.

오동택 부천시 행정안전국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교류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천시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미래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는 부천 청소년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외 교류도시를 방문해 7일간 홈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시는 참가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 활동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부천시 777 경기도

2025년 하반기 추가모집

한 국 어 교 육

- 모집대상** 경기도 및 부천시 거주 외국인주민(성인)
- 신청기간** 2025.08.03.(일)부터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센터 방문접수(신분증 혹은 여권 지참)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3층 사무실)
(일 ~ 목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수강료** 무료(단, 교재는 별도 구매)
- 교육기간** 8월 31일(일) ~ 12월 14일(일) 매주 일요일
-오전(10:00~12:00) : 기초, 초급, 중급, 고급반
-오후(13:00~15:00) : 왕기초반, 토픽(TOPIK)대비반
-반배정은 신청 시에 편성시험 후 결정됩니다.
- 문 의** 032-654-0664



"다문화 자녀의 건강, 다문화 부모가 지킨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역할교육 '아이케어 365' 진행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은주)는 지난 7월 23일(수) 오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컨퍼런스룸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모역할교육 '아이케어 365'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토피 피부염 및 식품알레르기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 내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을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진경애 간호사가 맡아, 아

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증상, 식이조절 및 환경관리 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 건강문제에 대해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일상 속 실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교육으로 평가받았다.

정은주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장벽이나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조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아이케어 365 교육은 부모의 양육역량을 높이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까지 돕는 맞춤형 예방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라는 중장기 전략목표에 따라, 앞으로도 건강, 교육,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 맞춤형 부모역할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주엽어린이도서관
영어 그림책 특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그저 영어 그림책을 읽어 봤을 뿐입니다!』의 저자인 '만두 아빠'를 초청해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영어 그림책 활용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저자는 영어 그림책을 통해 아이의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키워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 생생한 육아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영어 그림책을 통한 영어 습득의 구체적인 노하우뿐만 아니라, 영어에 흥미를 붙이고 즐겁게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특히, 강연 후에는 저자가 같이 참여하는 온라인 영어책 읽기 실천 프로그램인 '그림책 60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챌린지는 60일 동안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고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도서관에서 다시 모여 수료식도 진행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영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책을 통한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의 힘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영유아 시기의 독서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8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도서관센터 누리집 > 독서문화 > 프로그램 신청을 참고하거나 주엽어린이도서관(☎031-8075-9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심리지원, 언어재활 등 9개 분야...4~8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4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총 9개 분야로,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45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25명)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20명)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30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100

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100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2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10명)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90명)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는 2025년 신규 서비스로, 인공지능(AI)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나 경도인지장애 판정자의 인지-언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해야 한다. 서비스별 소득·연령·육구 기준에 부합한 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들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토픽 시험이 왜 필요한지, 필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아요!

‘TOPIK 2025’ Зачем вам нужен экзамен и как проходит письменный тест?

Зачем вам нужен экзамен и как проходит письменный тест?

Если вы студент в Корее,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вам не нужно объяснять, что такое TOPIK. Обычно студентам требуется сдать этот экзамен, чтобы успешно окончить университет. Но если вы уже работаете в Корее и не вдавались в подробности этого теста — сейчас всё объясню: зачем же вам может понадобиться TOPIK?

Зачем нужен TOPIK?

Самая очевидная причина — официаль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Это серьез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за проведение которого отвеча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юбые незаконные махинации с экзаменом (подставные лица, покупка ответов и т.п.) строго отслеживаются и наказываются — вплоть до уголо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запрета на участие в экзамене.

TOPIK — это весом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 при официально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некоторые компании требуют определенный уровень);
- при подаче на стажировки в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 при оформлении виз: TOPIK может ускорить и упростить получение F2, F5, E7, D10, E9 и др.

Уровни TOPIK — от 1 до 6

В рамках экзамена TOPIK всего 6 уровней, и вот как примерно выглядит их расшифровка:

1 уровен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если вы владеете самыми базовыми навыками общения, например: приветствие, само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купка товаров на рынке,

заказ еды в ресторане и т.п.

2 уровен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если вы: понимаете простые предложения, мож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для решения бытовых задач, умеете общаться в ресторане, банке, на почте, в больнице и т.д.

3 уровен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если вы: свободно ориентируетесь в повседневной речи, не испытываете трудностей в бытовом обще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уровня, сложность экзамена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астает.

4 уровен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если вы: не только справляетесь с повседневным общением, но и понимаете сложные темы: новости, соци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ультурные материалы и т.п.

Обычно требуется для: выпуска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ступления в магистратуру,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5 уровен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если вы: уверенно владеете корейским в академическ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реде, способны понимать лекции, статьи, деловую переписку и вести дел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Обладателя 5 уровня можно считать очень свободно говорящим.

6 уровен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если вы: очень свободно владеете корейским даже в сложных научны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темах.

-С этим уровнем: ваша грамотность выше среднего даж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открыты все карьерные и академ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Корее.

Недавно я сдала письменный экзамен и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Если вы планируете получить 1–2 уровень,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TOPIK I (стоимость — 40 000 вон). Для уровней с 3 по 6 — выбирайте TOPIK II (стоимость — 55 000 вон).

Любая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я в Корее проходит с невероятной скоростью! Популярные концерты, билеты, бронирование в модные рестораны, лекции лучших профессоров — всё разбирают моментально. И TOPIK не исключение! Поэтому совет: регистрируйтесь сразу в момент открытия. Особенно места в Сеуле исчезают буквально за секунды.

Рекомендую заранее выбрать хотя бы 2–3 удобных для вас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центра и действовать по заранее продуманной стратегии.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ходит на сайте: www.topik.go.kr и обычно начинается в 10:00 утра.

После успеш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и оплаты экзаменационного взноса позже можно будет распечатать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пропуск (수험표), в котором указана вся ва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язательно возьмите с собой документ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ичности, корректирующую ленту, и распечатайте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пропуск.

Я сдавала экзамен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Университете Южного Сеула.

В принципе, найти аудиторию несложно: просто следуйте за другими участниками. Но лучше всё же проверить заранее здание и номер кабинета, указанные в пропуске.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ычно размещают баннеры и указатели, чтобы никто не потерялся.

Не опаздывайте на экзамен! Время начала также указано в вашем пропуске. Когда войдете в аудиторию, на столах уже будут наклейки с именами участников — занимайте своё место.

Дальше остаётся одно — сдать экзамен на отлично! Желаю удачи!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력단절여성, 자기돌봄으로 힐링해요"

광명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심포 사이, 나를 만나다'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광명시 거주 10명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마음챙김.미술치료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포 사이, 나를 만나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인근 도시로서 맞벌이 가정이 많은 광명시의 지역 특성과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해 기획됐다.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사업에서 자기돌봄을 통한 심리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집단상담은 총 3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1회기는 '과거와 현재의 나, 있는 그대로 보기'를 주제로 ▲바디스캔 ▲주제 대화 ▲마음챙김 메시지 만들기가 진행됐다. 2회기는 '나에게 친절하게 말 걸기' 주제로 ▲손바닥 명상 ▲자기경험 나눔 ▲자기자비 메시지 만들기, 3회기는 '가치를 담은 삶, 다시 피어나는 나' 주제로 ▲먹기명상 ▲나눔활동 ▲나만의 마음챙김 다이어리 꾸미기 미술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 이OO씨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부족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기특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서OO씨는 "나를 위한 시간은 처음이었는데 힐링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고통이 경감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OO씨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를 돌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마음챙김을 통해 나를 챙기니 회기가 지나면서 평온함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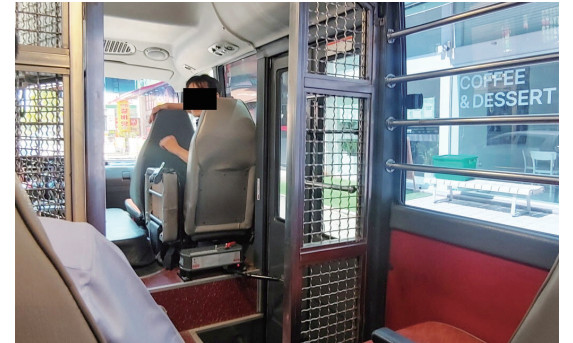
남은정 센터장은 "광명의 경력단절여성들이 힘을 얻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집단상담을 기획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앞으로도 광명의 다양한 가족들이 집단상담 혹은 가족상담을 통해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가족상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상담이 필요한 개인, 부부, 가족들을 위해 평일 저녁(수금 20시까지, 화 21시까지)과 주말(토 9~18시)에도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심리검사와 해석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 또는 전화(02-6265-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미등록 외국인 1만 8천명 출국 법무부, 미등록 외국인 합동단속



법무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으며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범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 아바 476정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및 대포차 운전자 18명을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단속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고용주 2,289명 중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 중에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항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객선에 탑승을 시도한 불법체류 외국인 4명 및 알선자 1명 등 총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8,59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하였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43만명에 달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6월 현재 37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기억 1년 성립 서 Xã hội Di cư tỉnh Gyeonggi... Đã xây dựng 33 nhiệm vụ trong 4 lĩnh vực để hỗ trợ người di cư

Tỉnh Gyeonggi đã thành lập Cục Xã hội Di dân vào tháng 7 năm 2024 – lần đầu tiên trong số các chính quyền cấp tỉnh toàn quốc – nhằm ứng phó với sự gia tăng nhanh chóng của dân số di dân và xây dựng một xã hội bao bọc, nơi mọi cư dân đều có thể sống mà khô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Sau đó, tỉnh đã thiết lập “Kế hoạch tổng thể về xã hội di dân tỉnh Gyeonggi (2025~2027)”, đề ra tổng cộng 33 nhiệm vụ trong 4 lĩnh vực chính: ▲hòa nhập xã hội ▲bảo đảm nhân quyền ▲chính sách di dân ▲quản trị. Nhân dịp kỷ niệm 1 năm thành lập Cục Xã hội Di dân, chúng ta hãy cùng tìm hiểu xem chính sách di dân của tỉnh Gyeonggi đã có những thay đổi như thế nào nhé!

■ Triển khai hỗ trợ thực tế gần gũi với đời sống hàng ngày

Tỉnh Gyeonggi đã thành lập Trung tâm Hỗ trợ Hội nhập Xã hội Di dân Tỉnh Gyeonggi tại thành phố Uijeongbu vào tháng 7 năm nay.

Trung tâm này được mở rộng và cải tổ từ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với quy mô văn phòng được mở rộng đáng kể và số lượng nhân lực được tăng gấp đôi. Ngoài ra, dịch vụ tư vấn đa ngôn ngữ cũng đã được đưa vào hoạt động mới. Ngôn ngữ hỗ trợ là 10 thứ tiếng được sử dụng phổ biến nhất bởi người di cư, cung cấp các dịch vụ phù hợp như thông tin pháp luật, lao động và đời sống. Năm ngoái, hơn 10.000 người đã được hỗ trợ tư vấn về giáo dục và các vấn đề dân sự trong sinh hoạt hàng ngày.

Tỉnh Gyeonggi có kế hoạch xây dựng “Cổng thông tin người di cư” đến năm 2026, cung cấp thông tin về cư trú và đời sống bằng nhiều ngôn ngữ và tích hợp chức năng cộng đồng theo từng quốc gia,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tiếp cận thông tin dựa trên nền tảng số, giúp tất cả người di cư có thể ổn định định cư trong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 Cải thiện nơi ở và xây dựng nền tảng an toàn lao động

Tỉnh Gyeonggi đã hỗ trợ cải tạo 15 nơi ở xuống cấp để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sống cho lao động di cư, đồng thời thiết lập kế hoạch tổng thể hỗ trợ toàn diện cho lao động di cư.

Đặc biệt, sau vụ hỏa hoạn nghiêm trọng xảy ra vào năm ngoái khiến nhiều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iệt mạng, nhằm ngăn ngừa các tai nạn tương tự, tỉnh đã lựa chọn 15 “Nơi làm việc hạnh phúc” và dự kiến hỗ trợ chi phí cải thiện cơ sở vật chất và môi trường làm việc lên đến 10 triệu won cho mỗi cơ sở sản xuất. Bên cạnh đó, một tổ công tác (TF) cũng đã được thành lập để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nhà ở tồi tàn như nhà kính, và hiện đang tiến hành kiểm tra hiện trường định kỳ hai lần mỗi năm phối hợp với 31 thành phố–huyện và chính phủ trung ương. Hiện nay, chính quyền đang thúc đẩy việc thành lập “Trung tâm hỗ trợ lao động nhập cư” chuyên về an toàn và sức khỏe nghề nghiệp.

■ Hỗ trợ cả trẻ em có hoàn cảnh di cư chưa đăng ký cư trú

Trước đây, trẻ em nước ngoài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giáo dục bắt buộc và cũng không có đăng ký cư trú, nê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không thể gửi thông báo nhập học. Vì vậy, nhiều phụ huynh nước ngoài đã bỏ lỡ thời điểm nhập học cho con vào tiểu học.

Tỉnh Gyeonggi đã gửi giấy hướng dẫn nhập học đến 2.037 trẻ em là con em người di cư vào tháng 2 năm nay lần đầu tiên trong số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ấp tỉnh trên toàn quốc nhằm giải quyết những khó khăn của các trường tiểu học ở khu vực tập trung nhiều trẻ em ngoại quốc do không nắm được tình hình nhập học của các em, cũng như khắc phục tình trạng nhiều trẻ em ngoại quốc không nhận được thông tin nhập học và bị bỏ mặc.

Ngoài ra, để tiếp tục bảo đảm quyền được giáo dục cho trẻ em nước ngoài không đăng ký cư trú, chính quyền đã đề xuất với Bộ Tư pháp kéo dài thời gian lưu trú tạm thời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trẻ sinh ra tại Hàn Quốc hoặc nhập cảnh khi còn nhỏ (dưới 6 tuổi), ▲trẻ đã cư trú tại Hàn Quốc từ 6 năm trở lên, ▲trẻ đang theo học hoặc đã tốt nghiệp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tại Hàn Quốc. Đề xuất này đã được chấp thuận.

Ngoài ra, đối với trẻ em có hoàn cảnh di cư không đăng ký cư trú và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đăng ký khai sinh, chính quyền đang đi đầu trong việc bảo đảm các quyền cơ bản như giáo dục và y tế thông qua “chế độ xác minh công khai” hỗ trợ cấp giấy tờ tùy thân. <한글 기사 5면>

과과야스토리

무역 실무부터 취업 매칭까지
K-수출전사 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 모집
비자 연계 커리큘럼 및 교육비 전액 정부 지원·전국 수강 가능 ~5.2(금)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신청방법
국문 이력서(자유양식) 작성 후 이메일(worldcareer@naver.com) 제출

문의처
지열피플로버블 그룹 서울센터 (02-6245-3579) 부산센터 (051-509-5996)

K-수출전사 아카데미란?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진로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생은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인 'K-Work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취업을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
* 제1기 과정은 5월부터 8월까지, 제2기 과정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예정

모집대상	교육내용
(총 300명)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중 유학(D-2) 또는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200시간의 커리큘럼 구성 - 무역실무 이론 - 수출 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 등 실무 중심 교육

전 커리큘럼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전국 어디서나 수강 가능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 1. 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영주증
-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인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가족센터 02-6265-1366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Иностранцы в программе сез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теперь участвовать смогут тольк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안내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грамма сез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теперь получила правовую основу. 23 июл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риняло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несении частичных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ельском и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депутатом Им Миэ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а законопроекта, касающиес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истемы — включая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принятые 3 июля, — завершил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ую процедуру. <Фото: Хадон-гун>

Почему понадобилась правовая основа?

Существующая система сез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была введена для решения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но до сих пор

он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а только по указания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без правовой базы, что создавало много уязвимостей. Особенно сложно было юридически пресекать случаи эксплуатации зарплат ил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оторые вмешивались посредники (брокеры).

Что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законопроект?

Принятые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включают: ▲ создание правовой базы для программы сез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 назначе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программой ▲ введение положений о наказании брокеров.

А поправки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ельском и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принятые на этот раз, можно назвать «практическим 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законопроектом

», дополняющим предыдущий. В него входят: ▲ определение понят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сезо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 внедрение стандартного трудового договора ▲ обязательное страхование на случай задержки зарплаты, болезни, смерти и т.п.

▲ правовая основа для назна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 программе сез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се эти мер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трудовых условий и защиты прав, выявленных на местах.

Что изменится?

В будущем тольк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значе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сез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Сейчас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г вмешиваться в процесс: связывать органы местной власти в Корее и за рубе

жом, по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от имени участников и т.п. Но с будущего года та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будет запрещена. Компании, не являющие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мешивающиеся в программу, будут привлечены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Тем не менее, остаются недостатки!

Хотя принятие двух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и стало важным шагом в создании правовой базы для программы сез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это, по сути, сделано в интересах корейских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законе никак не учтены нужды супругов-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оящих в браке с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и их семей, хотя они составляют важную часть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중략, 한글 기사 12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2025년 광명시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사업

기초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 고른 발달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어·수학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광명시 거주 다문화, 외국인, 중도입국 가족 자녀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아동

교육내용 기초 국어, 기초 수학, 사회 영역, 중도입국 한국어

- 기초학습 전담 교사의 수준별 맞춤형 소그룹수업으로 진행합니다.
- AI 학습을 활용해 교과연계 창의학습 운영!
- 분기별 특별활동을 실시해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습니다.
-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교육장소 광명시가족센터 (광명시 디지털로 34)

교육기간 2025년 3월~12월 (8월, 12월 방학 예정)

접수방법 온라인(QR)신청



문의 박희상 팀원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와 챗GPT 정복하기!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스마트다(多) 챗GPT 교육

챗gpt 스킬을 통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다문화강사되세요!!

신청기간	2025.8.13.까지 (선정: 8/14 개별 연락 안내)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기 : 챗gpt를 활용한 강의 기획하기 2회기 : AI를 활용한 교육 영상 제작하기 3회기 : 다양한 AI도구를 활용한 PPT 제작하기
일시	8.21(목) 10:00~13:00 8.26(화) 10:00~13:00 8.28(목) 10:00~13:00	강의비	무료
대상	결혼이민자 15명 (선착순)	신청방법	QR로 구글 신청
장소	광명시평생학습원 정보배움실 301호 (컴퓨터실)		
문의상담	T. 02-6265-1366 (가족지원1팀 이재희)		



챗gpt 스킬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광명시가족센터



여가활동으로 부부 친밀감 높이고, 지역주민과 화합!

광명시가족센터, 부부특성화지원 부부볼링대회 '우리 함께 굴러볼링?'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7월 12일 천호라볼링클럽에서 2025년 부부볼링대회 '우리함께 굴러볼링?'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부부가 함께 스포츠를 참여함으로써 부부간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 부부 친밀감을 향상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 내 부부 20쌍(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센터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으로 ▲부부대표 선서 ▲대회 방식 안내 ▲예선전 및 결승전 ▲시

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대회는 마무리됐다.

참여자 김OO 씨는 "부부가 같이 운동을 통해 단합할 수 있었고, 삶의 행복도가 높아져서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이 모 씨는 "배우자와 좋은 추억 만들고, 서로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발견하게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온전히 부부만의 시간을 통해 함께 웃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센터는 부부의 행복과 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부부 특성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방문 또는 전화(02-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청년 미취업자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청년들에게 균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물가 시대에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오는 8월 1일부터 다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상반기 접수가 진행됐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돼 마감된 바 있다. 하반기 신청은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상반기 접수 마감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응시료 실비가 지원되며,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다.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등 총 1,003종으로, 작년 909종보다 95종 늘어났다. 02-2680-6372 김영의 기자

매일 공연과 체험으로 즐기는 '배움과 나눔의 장' 열린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공연·체험으로 즐기는 생활 속 평생학습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매월 시민이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배움과 나눔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명시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년 광명시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생활 속 학습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 104호와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열린다. 첫 일정은 지난 22일에 진행됐다. 난타와 풍물 공연이 펼쳐졌고, 카드지갑 만들기 체험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오는 8월 26일에는 수화동아리와 한국무용 공연이 마련돼 시민과의 따뜻한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0월 28일, 11월 25일, 12월 23일에도 각 분과의 특색을 살린 공연과 체험이 이어져 시민과 동아리가 함께하는 소통과 나눔의 시간이 지속된다.

박미숙 광명시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배움과 나눔의 자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동아리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수 평생학습원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려면 이런 나눔의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동아리 활동이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공모사업으로 31개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정규 등록된 동아리에 상·하반기 총 260건의 학습모임 공간을 제공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가갸호호 프로젝트', '평생학습 축제', '느슨한학교' 등에 동아리 소속 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학습협력팀(02-2680-620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권역별 마을배움터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7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모집한다.

권역별 마을배움터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광명시 대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12개 강좌가 개설된다.

주요 강좌는 ▲순솔에서 피어나는 모루아트·라탄 ▲화려한 외출(메이크업) ▲성인도 할 수 있다! 보드게임 교실 ▲탐조, 새를 만나고 자연을 읽다 ▲챗지피티(Chat GPT)와 친구 되기 ▲도란도란 힐링 바느질 등이며, 각 강좌는 6~8회차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광명시 평생학습포털 '광명e지(ill.gm.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7월 27일까지는 해당 권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수하며, 7월 28일부터는 거주지 제한 없다. 02-2680-6200 김영의 기자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

김병수 김포시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주목’



김병수 김포시장이 ‘전국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으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김포시는 기초단체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2024년 4월 가결 받아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학령기 도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정보 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개인정보 취득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2월 관내 18개국 112명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국적별로 번역된 취학통지서를 발송했고,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2,037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취학통지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159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401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91개 사례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가 23~24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김포시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은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결과, 문제 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긍정적 효과를 타 지자체에 널리 확산했다는 점에서 불평등 완화 최우수 정책 모델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기질로 알아보는 소통육아...김포시가족센터 육아나눔터(구래) 소통 부모교육 진행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 육아나눔터(구래)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0시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질소통육아&

부모를 위한 감정향수 힐링테라피’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기질로 알아보는 소통육아’는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적응형 등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인지할 수 있도록 TIC 기질 검사를 했다.

참가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하며 검사에 참여했으며, 기질별로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금 부모는 어떤 감정이고 어떠한 힐링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향수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이의 사회성, 정서 조절 능력에 도움을 주

고자 마련했다. 특히 소통육아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도 감정조절을 하며 건강한 방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참여자 부모는 “자녀와 함께 참여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한 번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는 “감정향수가 있음을 알고 나의 감정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족센터 육아나눔터는 구래센터, 통진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공간이 용도 가능하다. 031-997-5921 김영의 기자

8월 구래 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동화속 요리 속 동화요리

1회기 : 8. 22(금) 3:00~
2회기 : 8. 29(금) 3:00~

오늘 내 기분은... <<연계도서>>
꿈쟁이 할리에게 새 집이 필요해 <<연계도서>>

관정표현 컵 케이크 <<요리활동>>
미니어처 과자집

모집대상 : 부모와 자녀 5~7세(21년생~19년생) 8가정
진행일시 : 8월 22일, 29일(금) / 16:00~17:00
진행장소 : 김포시가족센터 육아나눔터(구래동)
(김포한강4로 564 LH한가람마을 2단지)
신청방법 :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부모&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무료)
문의 : 031. 996. 5923

김포시가족센터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마마랜드 속으로

부모교육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다문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지원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인 차이와 함께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언어 및 문화적인 교류를 강화하는 방법

날짜: 8/29(금) 10:00 ~ 12:00
장소 : 김포시가족센터 교육실2(구래센터)

문의 031-996-5920 김포시가족센터

육아나눔터(구래) 상시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요리하기

1회기 : 8.13(수) 3:00~
2회기 : 8.20(수) 3:00~

<<연계도서>>
<<요리활동>>

병아리도시락
무지개 케이크

모집대상 : 부모와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8가정
진행일시 : 8월 13일, 20일(수) / 15:00~16:00
진행장소 : 김포시가족센터 육아나눔터(구래동)
(김포한강4로 564 LH한가람마을 2단지)
신청방법 :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부모&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무료)
문의 : 031. 996. 5923

김포시가족센터

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포용사회 실현 위한 정책 추진

“移民也是京畿道居民”推进实现包容社会的政策 令人惊叹... 制定4个领域33个移民支援课题

京畿道为了应对剧增的移民人口,打造所有居民无差别生活的包容社会,于2024年7月在全国广域自治团体中首次新设了移民社会局。

之后还制定了京畿道移民社会综合计划(2025~2027)》,提出了▲社会团结▲人权保障▲移民政策▲治理共4个领域的33个课题。值此移民社会局成立一周年,让我们来看看京畿道移民政策发生了哪些变化吧。

■ 全面开展贴近生活型现场支援

京畿道今年7月在议政府市设立了京畿道移民社会综合支援中心。

京畿道移民社会综合支援中心是扩大改编“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功能的机构,大幅扩大了办公室规模,补充了2倍以上的人力。另外,还新引进了多国语言咨询。

支援语言为大部分移民使用的10种语言,提供法律·劳务·生活信息等定制化服务。去年有1万人以上接受了教育和生活咨询服务。

京畿道计划到2026年为止,为所有移民稳定地定居在地区社会提供滞留·生活信息,并构建具备各国社区功能的“移

民门户网站”,提高提高数字化信息获取能力。

■ 改善休息场所和建立产业安全基础

京畿道为了改善移民劳动者的居住环境,对老化的15个休息场所进行支援改造,并制定了移民劳动者的综合对策。

特别是去年多数外国劳动者死亡的火灾事件后,为了防止类似事故,选定15个“幸福工作岗位”,每个制造企业计划最多支援1千万韩元的车间设施和环境改善费。另外,为了消除塑料大棚宿舍等恶劣的居住环境,建立了TF,与31个市郡和中央政府合作,每年进行2次联合现场检查。目前正在推进设立专门从事产业安全保健的“移民劳动者支援中心”。

■ 未登记移民背景儿童支援

一直以来外国儿童不是义务教育对象,而且因为没有居民登记,地方自治团体不能进行入学介绍,因此外国父母错过小学入学时期的情况很多。

京畿道为了解决因无法了解外国新生现状而经历混乱的外国儿童密集地区小学的困难和外国儿童没有得到入学通知

而被搁置的问题,全国广域自治团体中首次在今年2月向2037名移民子女发送了入学通知书。

另外为了持续保障未登记的外国儿童的教育权,向法务部建议▲国内出生或婴幼儿(未满6岁)入境▲在国内滞留6年以上▲在国内小学·初中·高中就读或高中毕业的儿童等延长临时滞留资格期限,这一建议被采纳。

除此之外,对于出生登记困难的未登记移居背景儿童,通过支援发放身份证的“公共确认制度”,带头保障教育、医疗等基本权利。

■ 为社会和谐扩大生活支援

京畿道通过与京仁地方邮政厅签订业务协议,将仅限于多文化家庭的国际特快专递(EMS)费用优惠10%扩大到了外国居民。追加支援对象有居住在京畿道的▲外国留学生(D-2,D-4)▲外国劳动者(E-8,E-9,H-2)▲外国国籍同胞(F-1,F-2,F-3,F-4,F-5)▲求职者(D-10)等,占京畿道全体外国人中的85%。

今年8月将开设专门为遭受暴力的移民女性提供服务的专业咨询中心,9月将举办移民与本地居民、移民背景青少年

共同参与的移民社会融合庆典,以加强受害者保护及共同体意识。

■ 加强未来人才引进和留学生支援

京畿道为了满足产业现场的人力需求,吸引外国优秀人才,设计了“京畿道型E-7(特定活动)广域签证”,京畿道型广域签证以尖端ICT、疗养等特定活动(E-7)签证领域为对象,确保了相当于全国E-7类别配额(1210名)52%的630名广域签证配额。

随着外国留学生逐渐增加,今年6月与京畿道议会制定了《京畿道外国留学生支援条例》,并计划设立“京畿道外国留学生支援中心”,支持优秀人才在京畿道稳定地定居和活动。

京畿道移民社会局局长金元圭表示:“移民社会局成立后,为了打造道民和移民共同成长的社会,一直在推进多方面的政策”,“今后将在‘移民也是京畿道居民’的原则下,通过引领全国的移民政策,实现任何人都受到尊重、共同生活的包容社会”。在移民友好政策方面遥遥领先韩国其他地方政府的京畿道政策,您是否也感到惊讶呢? <한글 기사 5면>

경기다문화뉴스

한국 농축산물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해...전통시장은 환급 행사 진행

한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는 일정 기간 한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농축산물 할인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내외국인의 물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사업에서는 한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진행해요.

특히,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소비자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한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주일에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하면 자동으

로 할인을 적용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환급행사도 진행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을 위한 행사도 진행해요.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했지만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은 전국 130개 시장에서 환급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전통시장에서 한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흥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때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5면, 베트남어 15면, 몽골어 15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가족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자!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 한전ON에 접속하여 신청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좌측 QR코드로 접속
- 한전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전국 한전사업소에서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요금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 달력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10월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지급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 당 30~100원 지급 (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절감률 구간	3%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이하
단가	30원/kWh	60원/kWh	80원/kWh	100원/kWh

[지급 예시]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이 332kWh인 고객 기준

절감률	절감량(kWh)	캐시백
4%	13	390원(13kWh x 30원/kWh)
7%	23	1,380원(23kWh x 60원/kWh)
11%	37	2,960원(37kWh x 80원/kWh)
22%	73	7,300원(73kWh x 100원/kWh)
33%	110(100*)	10,000원(100kWh x 100원/kWh)

* 평균사용량 332kWh인 고객이 33%만큼(절감량 110kWh)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 한도(절감량 100kWh)로 캐시백 지급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참여 제외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 세대별 사용량을 한전에 미제출한 아파트 고객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할인

이사 등으로 신청자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 자동해지되며, 전입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재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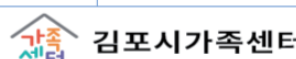



2025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통번역사 양성과정

- **교육장소** - 김포시가족센터 (구래센터)
위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 **참여자격**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TOPIK 4급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접수기간** - 2025년 07월 28일 ~ 08월 18일
- **접수방법** -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
- **문의** - 031-996-5920 가족사업 1팀 신주은
- **내용** - 통번역 기법 학습을 통해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교육)



회차	날짜 및 시간	내용
1	8/19(화) 10:00 ~ 13:00	통번역 소개
2	8/26(화) 10:00 ~ 13:00	상담 과정의 이해, 상담의 기술
3	9/02(화) 10:00 ~ 13:00	상담 통번역사 1 (학교 상담통역사)
4	9/09(화) 10:00 ~ 13:00	상담 통번역사 2 (학교 상담통역사)
5	9/16(화) 10:00 ~ 13:00	상담 통번역사 3 (학교 상담통역사)
6	9/23(화) 10:00 ~ 13:00	상담 통번역사 4 (학교 상담통역사)
7	9/30(화) 10:00 ~ 13:00	병원통역사 1 - 병원 통역사의 역할
8	10/14(화) 10:00 ~ 13:00	병원통역사 2 - 소아과 / 산부인과
9	10/21(화) 10:00 ~ 13:00	병원통역사 3 - 치과 / 피부과 / 성형외과
10	10/28(화) 10:00 ~ 13:00	사법통역사 1 (경찰통역)
11	11/04(화) 10:00 ~ 13:00	사법통역사 2 (난민통역)
12	11/11(화) 10:00 ~ 13:00	사법통역사 3 (법정통역)
13	11/18(화) 10:00 ~ 13:00	사법통역사 4 (법정통역)
14	11/25(화) 10:00 ~ 13:00	시험 (민간자격발급)



2025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초기정착 이후, 결혼이민자들의 안정된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입국5년이상 결혼이민자

신청방법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회원가입>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

문의: 031-996-5920 / 가족사업1팀

신청기간

2025년 07월 31일 ~ 2025년 09월 05일

장소

김포시가족센터
위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구래동, 엘에이치한가람마을2단지)

회차	날짜	시간	내용
1회	9.08(월)	11:00~13:00	오리엔테이션 및 나의 미래찾기
2회	9.22(월)	10:30~12:30	한국의 직장문화 이해하기
3회	9.29(월)		관계형성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4회	10.24(금)		일도, 육아도 완벽한 당당한 학부모로의 입문
5회	10.27(월)		예비 초등학교 부모를 위한 교육1
6회	10.31(금)		예비 초등학교 부모를 위한 교육2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ĂM 2025 - GÓI HỖ TRỢ THEO TỪNG GIAI ĐOẠN ĐỊNH CƯ DÀNH CHO NGƯỜI DI TRÚ THEO ĐIỆN KẾT HÔN

Đây là chương trình nhằm hỗ trợ người di trú theo diện kết hôn ổn định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sau giai đoạn định cư ban đầu.

Đối tượng

Người di trú theo diện kết hôn đã nhập cảnh trên 5 năm

Đăng ký

Đăng ký trên trang chủ của Trung Tâm Gia Đình Gimpo (회원가입>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

Liên hệ : 031-996-5920 / 가족사업1팀

Thời g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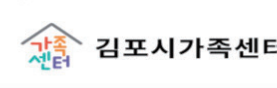
31.7.2025 ~ 5.9.2025

Địa điểm

Trung Tâm Gia Đình Thành Phố Gimpo
Vị tr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구래동, 엘에이치한가람마을2단지)

Lần	Ngày	Thời gian	Nội dung
Lần 1	8.9 (Thứ 2)	11:00~13:00	Định hướng và hành trình tìm kiếm tương lai của bản thân
Lần 2	22.9(Thứ 2)	10:30~12:30	Hiểu về văn hóa công sở Hàn Quốc
Lần 3	29.9(Thứ 2)		Xây dựng hình ảnh để tạo dựng mối quan hệ
Lần 4	24.10(Thứ 6)		Bước khởi đầu trở thành phụ huynh tự tin và hoàn hảo trong cả công việc và nuôi dạy con
Lần 5	27.10(Thứ 2)		Chương trình giáo dục dành cho phụ huynh có con chuẩn bị vào tiểu học (1)
Lần 6	31.10(Thứ 6)		Chương trình giáo dục dành cho phụ huynh có con chuẩn bị vào tiểu học (2)

※ Lịch trình và nội dung trên có thể thay đổi tùy theo tình hình của trung tâm.



다문화 자녀 진학에 큰 도움

김포시, 이주배경청소년 입시설명회 큰 호응



‘상호문화주의 선도도시’ 김포시가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서 발급한 데 이어,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권 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7일 11개국 출신의 이주배경청소년 및 학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김포에서 최초로 열린 이주배경청소년 입시설명회로, 국가별 통역을 지원해 참여도를 높이며 진행됐다.

김포시청과 경기도청, 김포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입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최신 입시 동향 및 전략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특히 김포는 체류유형이 다양한 만큼, 각 유형에 맞는 입시 대비와 준비서류, 학업 성적 관리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오가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은 입시전형에 있어 전형별로 갖춰야 하는 자료와

이점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대학별 전형 특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이주배경인 참여자는 “자녀의 진학에 큰 도움이 됐다. 강의자료 과일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전했고, 중국 이주배경인 참여자는 “진학에 대해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평소 대학입시에 관련하여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녀와 함께 같이 진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큰 도움이 됐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수 시장은 “대한민국의 등록 외국인이 총인구 대비 5%를 넘어섰고 우리 시 또한 50만 대도시를 이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과 학부모가 입시 및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포시는 중학교 입학 예정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도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 대표적 상호문화도시인 김포시는 약 2만 5천여 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장기도서관 어린이 독서캠프 모집

김포시(시장 김병수) 장기도서관은 ‘202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맞아, 어린이 독서캠프 「여름밤 도서관에서 살아남기」를 8월 23일(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어린이 대상 특별 프로그램으로 주말 도서관 이용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도서관에 입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독서 체험 전문 강사와 함께 독후활동을 진행하며, 자율독서, 보물찾기, 마술쇼를 관람하고 오후 10시에 귀가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여기고, 도서관에 오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독서캠프 신청은 8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장기도서관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또는 김포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어린이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도서관(031-5186-4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더 나은 외국인복지 위해 협력!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김포시 회의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회장 김용국)는 지난 7월 24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최영일) 다목적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대부분의 기관장이 참석해 외

국인복지센터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협의회 명칭을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물놀이

김포시사계절썰매장 야간개장 시범운영

(재)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에서 운영하는 김포시사계절썰매장과 야외수영장이 시민들의 여름철 야간 여가활동 기회 확대와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8월 10일(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개장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낮 시간대 활동 제약을 고려해, 시민들이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운영 구역은 야외수영장의 성인풀, 유아풀, 돛자리존으로 구성되며, 물썰매장은 미운영된다.

현장에는 감성적인 경관조명과 안전조명이 설치되고, 야간 전용 안전요원 배치, 벌레 유인등 및 포충기 설치를 통한 해충 차단 조치 강화 등 야간 이용에 최적화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샤워실 및 탈의실 야간 확대 운영, ‘한강라면’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매점 운영, 감성 포토존 조성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주간 이용 요금과 동일

하며,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8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선착순 200명 한정으로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현장 발권 후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소년재단 또는 김포시사계절썰매장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031-981-7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사계절썰매장 관계자는 “이번 야간개장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과 수요를 분석한 뒤, 향후 정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센터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2025년 이열치열 러닝’ 야간운동 프로그램을 열고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러닝 지도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야간에도 활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김포시는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가족 마음 한 걸음 나들이 함께! 김포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초등생 자녀 대상 진행

김포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12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가족 마음 한 걸음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온가족 보듬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덕포진교육박물관과 ‘외할머니의 부엌’에서 진행됐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가족 마음 한 걸음 나들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역사회 이해 증진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기획됐다. 덕포진교육박물관에서는 김포의 역사와 유적에 대한 체험 중심 탐방이, ‘외할머니의 부엌’에서는 컵 만들기 및 주먹밥 만들기 등 전통 식생활 체험 활동이 이뤄졌다.

참가 아동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주먹밥을 만들어 먹어보는 게 재미있었고, 처음 만난 친구들

과도 쉽게 친해졌어요.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아동은 “박물관에서 김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어머니의 고향 이야기를 하며 더 가까워졌어요.”라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기초학습지원사업과 협업을 통해 총 33명의 아동이 통합 운영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했다. 활동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5점 만점에 4.44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역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가족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도자기 공방에서 나를 빛다 김포시가족센터, 1인 가구

김포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26일 1인가구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도자기 공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고,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도예가의 전문 지도로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만의 그릇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자기 공방 체험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흙을 만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타인과 교류가 적은 1인가구에게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 A씨는 “처음에는 혼자서 참여하는 게 어색했지만, 손으로 흙을 만지고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함께 참여한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1인가구가 일상에서 여유를 찾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신청해요 김포시가족센터, 추가 모집 중

김포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동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은 다문화가족 간 소통을 통한 교류 촉진 및 사회 적응을 돕고, 자립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다문화 이해 교육 등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1그룹 구성원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1그룹 (5명)이며,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자조모임 그룹 형성 및 활동이 이뤄지며, 활동주제는 바쁜글씨쓰기, 스튜디오 등 자유다. 1그룹별 월 활동비 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홍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메일(gimpomfc@daum.net) 신청받으며, 선정된 모임은 활동 계획서, 활동일지, 활동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자조모임은 연 1회 전체활동, 평가회, 발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조모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가족센터(031-996-5923) 가족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언어 역량 활용한 통번역 전문가 양성해요

김포시가족센터, 다문화 통번역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김포시가족센터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이민자 본인의 언어 능력을 전문 직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통번역사 양성과정은 8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씩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토익 4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이 요구된다.

수업 내용은 통번역 기술을 익히기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공기관 및 의료·교육 분야 통번역 사례분석이다. 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테스트를 거쳐 민간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까지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가족센터(031-996-5920, 이메일 gimpomfc@hanmail.net)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